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성 보고서

2022. 6.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발 간 사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6조, 제8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서울시의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을 포함하는 지속가능성을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 및 향후과제 등을 담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2년마다 발간하고 시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 지속가능성 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함양하고 체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조례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UN SDGs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수립된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하에서 구축된 제2차 지속가능발전 체계하에서 작성된 최초의 보고서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지속가능발전 추진 배경, 지속가능성 평가 동향, 목적, 방법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2020년과 2021년 2년에 걸쳐 서울시정의 지속가능성 이행계획을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사회 분야), '활력 찬 경제정의 도시'(경제 분야), '쾌적한 기후환경 도시'(환경 분야) 및 '함께 만드는 서울'(협력·거버넌스 분야)의 4가지 전략과제로 구분하고 이 과제들을 97개 이행과제 및 106개의 세부 사업으로 세분화하여 108개의 성과지표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면서 평가에서의 문제점과 해소 방안 등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분석한 평가 결과를 총괄적으로 분석 및 요약하고, 주요 과제를 정리·소개합니다. 마지막 장은 결론으로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의 핵심 원칙이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지속가능성 복합지표와 핵심 이슈에 대해서 논하면서, 자치구와 시민들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교육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가치의 확산과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에서의 서울시 부서 간 및 위원회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서울시 시정의 지속가능성 이행계획의 목표 대비 달성률은 2020년도 78.7%, 2021년도 68.5%를 보이며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분야 별로는 2020년, 2021년 모두 71%의 달성률을 보인 경제 분야를 제외하고는 사회, 환경 및 협력·거버넌스 등 모든 분야가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평가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성과지표, 소극적 목표치와 2030 목표치를 기달성한 세부 사업, 비현실적 과대 목표치 설정, 목표 간 세부 사업이나 성과지표의 중복 등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세부 사업별로 상승, 유지, 하락 추세 등 다양하게 나타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세부 사업과 성과지표들을 심층 재검토하여 2030년 목표치 달성을 위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며, 부적절한 세부 사업이나 성과지표의 재설정, 목표치 상향 또는 현실화 등 평가 기준의 검토와 함께 수정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이 서울시정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서울 SDGs 2030'이 조례,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등 제도를 통해 공식적으로 수립되고, 이행계획을 평가하기 시작한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 이슈에 관한 한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도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지속가능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각 세부사업의 2030년 목표치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본 보고서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서울시의 정책 경험이 자치구, 기업, 및 시민들에게 전파되어 지속가능발전 가치가 서울시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년 5월 코로나19가 극심한 상황에서 출발하였고, 지난 2년간 끝이 안 보이는 팬데믹 상황, 서울시의 행정 수장을 비롯한 체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이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을 포함 하는 시정의 지속가능성 검토,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자치구와 시민들에게의 지속가능발전 확산 활동 등 서울시 기본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에 충실히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서 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위원들과 보고서 예산도 책정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고서 발간에 집필진, 검토위원 등으로 참여한 위원들과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원 해온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6월

제4기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일중

# 목 차

<b>1.</b>	<b>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개요</b>	<b>1</b>
1.1	지속가능발전 추진 및 평가 동향	1
1.2	지속가능발전 평가 목적 및 방법	3
1.3	제2차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주요내용	6
<b>2.</b>	<b>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과제별 평가</b>	<b>9</b>
2.1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	9
2.2	활력 찬 경제정의 도시	18
2.3	쾌적한 기후환경 도시	25
2.4	함께 만드는 서울	35
<b>3.</b>	<b>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요약 및 향후과제</b>	<b>43</b>
3.1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요약	43
3.2	향후과제	55
<b>4.</b>	<b>결어</b>	<b>61</b>
별첨1	서울시 지속가능성 2030목표 달성가능성	65
별첨2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70



# 1.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개요

## 1.1 지속가능발전 추진 및 평가 동향

### 1.1.1 지속가능발전 추진 배경 및 현황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오염과 환경 파괴로 인한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등장함에 따라 1983년 유엔은 환경개발위원회를 창설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유엔 환경개발위원회는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브룬트란트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의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세대가 필요한 자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환경보전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경제 발전 방식을 의미한다.

1992년 유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정상회의(리우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의제21>에 합의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2년 리우+10 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의 지표개발과 평가가 강조되었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방행동21>이 합의된 바 있다. 2012년 리우+20 정상회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제도화할 것을 결의하였고, 유엔의 주요 그룹(MGoS)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15년 9월 제70차 유엔 총회에 새천년 개발목표(MDGs)의 후속 목표로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확정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추진하는 발전목표이기도 하였지만, 전 세계가 추진해야 할 목표가 되었고,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IPCC 6차 평가보고서에서도 주요한 실천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지방의제21>로서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이 결정된 후 국내에서도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등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의제가 활성화되었다. 대통령 소속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6년 제1차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수립으로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격하되면서, 지속가능발전 담당 부서가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 이후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면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각 지방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21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복원되면서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수립을 기점으로 관련 업무가 국무조정실로 이관되어 탄소중립과 함께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서 이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2년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시정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담당 부서를 기획조정실로 정하고, 2013년 5월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자문기구로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를 설치하였다. 2017년 1월, 서울시는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통합적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이하 지속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울시는 2015년 수립되었던 ‘서울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2019년 국제 및 국가적 목표 체계에 부합하는 형태로 재작성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0~2024)과 이행 계획(2020~2024)을 수립하였다.

### 1.1.2 지속가능성 평가 동향

유엔은 매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표를 개발하였다. 유엔은 최초 232개의 SDGs 지표를 개발하였으나, 현재 247개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16개의 지표는 중복지표로서 하나의 지표가 2개의 세부목표의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평가되는 지표의 수는 231개로 볼 수 있다. 지표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유엔의 통계위원회에서 지표를 수정하거나 개선하고 있다. 유엔의 평가지표에는 정성지표와 미래지표가 포함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없는 지표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목표도 17개 SDGs를 선정하고, 세부목표에 대한 이행과제와 주요 사업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을 이행계획에 포함하고 있다. 2018년에 수립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는 17개 목표, 122개 세부목표, 214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부터 반영되었다. 214개 지표 중 목표치가 명시된 지표 112개, 목표의 방향만 명시된 지표가 21개, 이행 여부만을 판단하는 지표가 7개로 약 65%의 지표가 정량·정성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거나 통계산출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지표들은 평가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K-SDGs의 지표평가는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연도)>로 발행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OECD 국가들과의 비교(2019)를 통해 한국의 현황을 비교할 수 있게 제시하거나 코로나19(2021)가 한국의 SDGs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하는 등 매년 발행되는 보고서가 지표 평가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SDGs를 이행하는데 한계와 개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을 곁들이고 있다. SDGs 지표 평가는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표식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신호등과 같은 색깔로 2030목표 달성의 수준을 표현하거나 동심원으로 2030목표 접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기도 한다. K-SDGs의 경우처럼 목표순향도를 도입하여 일기예보의 “맑음” “맑거나 흐림”, “흐림”, “뇌우” 표식으로 달성 가능 여부를 보여준 사례도 있다.

## 1.2 지속가능발전 평가 목적 및 방법

### 1.2.1 평가 목적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6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연도 6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추후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이 이행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동 조례 제8조 제2항은 위원회가 이행계획 점검 결과를 포함하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본 조례에 근거하여,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을 점검하되, 제9조 제2항은 '상기한 바와 같이 추진 상황,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향후 과제 및 정책 방향, 그리고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라고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가 담아야 할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본 보고서는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서울을 바꾸는 17가지 방법)와 기본계획,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시정 핵심 원칙으로 설정하고 관리해 나갈 기반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기후 위기와 불평등, 보건 및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가치로서 지속가능성이 서울 시정의 원칙이 될 때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기후 위기 대응도 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울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며, 향후 서울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사례가 여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정부 및 기업 등이 지속가능성을 정착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의 목표는 다음의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목표 1: 서울 시정의 지속가능성 진단을 위한 변화 양상 파악

목표 2: 서울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요 파악

목표 3: 서울시 행정부서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 내재

### 1.2.2 평가 방법: 범위, 자료, 기준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평가는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본 평가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에 따라 서울시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것으로 기선정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성과지표를 이용하여 서울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측정 및 점검하는 것이다. 즉,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평가는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에 따라 서울시 실·국별로 추진한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수행되어 시정 전반에 지속가능성이 내재화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제2차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에 따라 4대 전략<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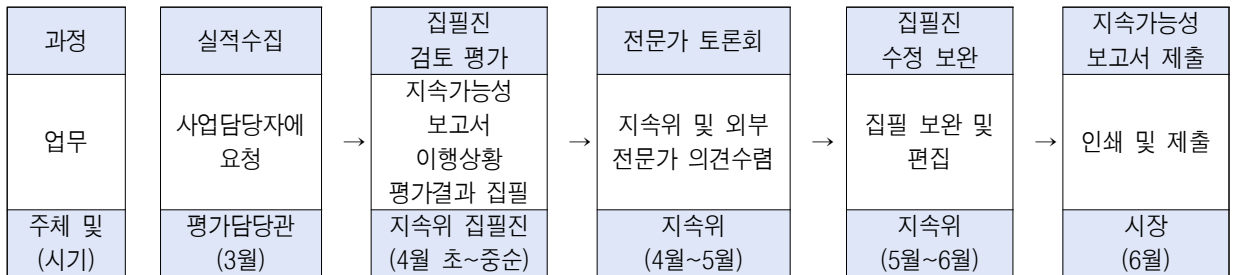
1)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는 사회 분야, 활력 찬 경제정의 도시는 경제 분야, 쾌적한 기후환경도시는 환경 분야, 함께 만드는 서울은 협력(거버넌스) 분야를 의미함.

97개 이행과제에 대한 106개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사업별로 연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있다.<sup>2)</sup>

지속가능발전 성과지표는 이행계획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106개 세부사업의 연차별 성과를 측정 및 점검하는 108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성과지표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체계와 연계하여 각 분야의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대표적인 요소로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되어 있으며, 이 지표 값의 목표 달성 여부와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평가이다.

이러한 이행계획의 평가를 담고 있는 본 보고서는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였으며<sup>3)</sup>, 토론회를 진행한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그 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2020~2021년 실적
- 내용: 지표별 달성률, 주요 과제 지속가능성 점검 및 향후 과제
- 과정: 지표별 실적 수집 → 지표평가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 토론회(의견수렴) → 지속가능성 보고서 제출



〈그림 1〉 이행점검 및 지속가능성 평가 흐름도

평가 의무와 내용의 목표 기간이 2020~2024년으로 본 보고서는 전반에 해당하는 2020~2021년을 대상으로 각 담당 부서의 실적치를 제공받아 작성하였다. 성과지표 중 통계치가 미집계된 지표(2020년 2개, 2021년 6개)는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다음 표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평가하는 세부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2) 이행계획의 구체적 추진 내용은 '제2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2020~2024)' 참조.

3) 별첨 2에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명단과 역할이 나와 있음.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평가 기준〉**

구 분	세부 기준	
달성	✓조기달성 ☞ 2020년 50%, 2021년 50%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나, 2020년에 100%를 전부 달성한 경우에 2021년 실적 없이도 달성으로 간주  ✓ 사업을 변경 추진하여 완료한 경우 ☞ 타당한 사유로 사업 A를 사업 B로 변경하여 달성 타당한 사유로 A와 B의 별도 지표를 A지표로 통합하여 관리하여 달성	
일부달성	✓ 사업 지연 및 중단외의 경우, 제반 상황 및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50% 이상 100% 미만 달성 ☞ 중앙정부 승인절차 지연,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 지연, 돌발 상황 발생 등
미달성		50% 미만 달성 ☞ 2020년, 2021년 실적산출 불가, 정상추진 중, 예산미확보로 사업 종료, 사업비 과다로 중단 등

- 상승해야 하는 수치의 달성률 계산법 = 실적치/목표치 \* 100
- 하락해야 하는 수치의 달성률 계산법 = [1-(실적치-목표치)/목표치]

### 1.3 제2차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주요내용

#### 1.3.1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주요 내용 (구조: 4대 전략, 17대 과제)

목표	2030 지속가능도시 서울			
4대 전략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	활력 찬 경제정의도시	쾌적한 기후환경도시	함께 만드는 서울
17대 과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을 위한 노력	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 에너지 비율 확대 및 에너지 효율 제고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도시 조성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b>역점</b>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을 위한 도농 유통구조 개선 및 도시농업 지원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b>역점</b>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지원	정의로운 서울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b>역점</b>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장려	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 조성 <b>역점</b>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 <b>역점</b>	한강 하구 생태계 보전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량 강화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	
이행 과제	26개 이행과제	18개 이행과제	30개 이행과제	23개 이행과제
세부 사업	27개 세부사업	24개 세부사업	31개 세부사업	24개 세부사업
성과 지표	27개 성과지표	25개 성과지표	32개 성과지표	25개 성과지표

※ 17대 과제: UN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 체계에 서울의 특색 반영(2017.11월/평가담당관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5대 역점과제: 서울시민 1천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2019.4월/평가담당관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분홍색 부분의 이행과제, 세부사업, 성과지표는 이행계획에 해당됨

### 1.3.2 제2차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주요 내용

4대 전략	총 17대 과제	이행과제 (총 97개)	세부사업 (총 106개)	성과지표 (총 108개)
1.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	1-1.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을 위한 노력	4개	4개	4개
	1-2.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을 위한 도농 유통구조 개선 및 도시농업 지원	3개	3개	3개
	1-3.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9개	9개	9개
	1-4.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6개	7개	7개
	1-5.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및 여성의 역량 강화	4개	4개	4개
2. 활력 찬 경제정의도시	2-1. 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 에너지 비율 확대 및 에너지 효율 제고	4개	7개	7개
	2-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7개	9개	9개
	2-3.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장려	3개	4개	4개
	2-4.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	4개	4개	4개
3. 쾌적한 기후환경도시	3-1.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도시 조성	6개	6개	7개
	3-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지원	9개	9개	9개
	3-3. 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 조성	6개	7개	7개
	3-4. 한강 하구 생태계 보전	3개	3개	3개
	3-5.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	6개	6개	6개
4. 함께 만드는 서울	4-1.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8개	8개	8개
	4-2. 정의로운 서울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9개	10개	11개
	4-3.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도시로서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6개	6개	6개



## 2.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과제별 평가

본 장에서는 ‘지속가능도시 서울 5개년 로드맵: 제2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2020년~2024년)’ 보고서에 수록된 서울시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97개 이행과제, 106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행계획을 108개 성과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를 분석한다.

### 2.1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

#### 2.1.1.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을 위한 노력

연 번	이행과제	세부사업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30
				실적치/ 목표치	실적치/ 목표치	달성 여부 (달성률)	달성 여부 (달성률)	목표 달성률 추세)
1	국가 및 서울시의 사회보장 제도를 통하여, 국민 최저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서울시민이 없도록 노력한다.	서울시민 복지기준 2.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	3.74/ 2.60	4.14/ 2.63	달성 (143.7)	달성 (157.5)	2.75% ↗
2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형 사회보장시스템을 갖추고 이행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지원(명)	338,981/ 338,981	355,930/ 355,930	달성 (100)	달성 (100)	552,164명 -
3	서울시민, 특히 취약계층이 금융복지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운영	금융복지 상담건수(건)	25,838/ 24,000	27,939/ 24,250	달성 (107.7)	달성 (115.2)	26,000건 ↗
4	서울시 취약계층의 경제적·사회적 환경적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줄여나간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가구)	27,236/ 25,000	22,170/ 30,000	달성 (108.9)	일부달성 (73.9)	70,000 가구 ↘

- 〈모든 형태의 빈곤종식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 서울시민 복지기준 2.0,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운영,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등 4가지의 세부사업이 설정되었다.
- 이행과제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 복지사각지대 해소지원, 금융 복지 상담건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이다.
- 달성률 추세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과 금융복지 상담건수는 상향, 복지사각지대 해소지원은 유지, 그리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는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과 2021년 실적치를 비교하여 보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를 제외한

4) 달성추세는 달성률의 변화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목표치 대비 100% 달성하였더라도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달성률이 증가하면 ↗, 변동이 없으면 -, 그리고 감소하면 ↘로 표시함. 달성률 추세는 목표치와 실적치가 증가하고 목표 달성을 했더라도 달성률이 하락하면 추 세선은 ↘ 으로 표시되고 목표 달성을 못 했더라도 달성률이 증가하면 추세선은 ↗로 표시되는 등 실질적 이행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이행과제에서 성과를 반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대안으로 실적치를 기반으로 한 추세 분석이 있는데 이 경우는 20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실적이 증가하면 추세선이 ↗로 표시되어 목표 달성 노력이 저하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나머지 3개 지표는 상승세를 보였다.

- 4가지 성과지표 중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한 지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과 금융복지 상담 건수이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지원은 목표한 바를 달성하였다. 반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율은 2030년 2.7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2020년 3.74%, 2021년 4.14%를 달성하여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으로는 2030년 목표치가 소극적으로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금융복지 상담건수 역시 2021년에 27,939건을 달성하여 2030년 목표치 26,000건을 초과하여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금융복지 상담건수는 복지수요를 의미하는 지표로서 상담 건수가 증가하였다고 해서 취약계층이 금융복지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급 측면에서 실제로 금융복지 혜택을 받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는 2021년 목표인 30,000가구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전년 대비 실적보다도 감소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2030년 목표인 70,000가구에 비해서 목표 대비 실적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목표가 비현실적인 것은 아닌지, 전년 대비 실적보다도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2.1.2.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을 위한 도농유통구조 개선 및 도시농업 지원

연번	이행과제	세부사업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30 목표
				실적치/ 목표치	실적치/ 목표치	달성 여부 (달성률)	달성 여부 (달성률)	
5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균형 있는 먹거리를 보장한다.	서울 먹거리전략 2030 추진	먹거리전략 2030 추진	수립완료/ 전략수립	수립완료/ 기본계획 수립	달성	달성	계속 추진 -
6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을 없애고, 생물학적으로 취약계층인 5세 미만 아동, 청소년기, 임신부, 모유수유 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태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월평균 관리 인원(명)	5,610/ 5,500	5,342/ 5,500	달성 (102)	일부달성 (97.1)	5,500명 ↘
7	지방 농수산물 생산자와의 바람직한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소규모 식량 생산은 물론 빈곤 및 정신건강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농업을 지원한다.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운영	도시텃밭 조성면적(ha)	212/ 210	217/ 217	달성 (101)	달성 (100)	260ha ↘

-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균형을 위한 도농유통구조 개선 및 도시농업 지원>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3개 이행과제가 설정되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3개 세부사업과 3개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2020년과 2021년도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 ‘먹거리 전략 2030 추진’은 수립 완료로 목표 달성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 월평균 관리인원의 달성률이 2020년도에는 102%로 목표 달성을 하였으나 2021년에는 97.1%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도시텃밭 조성 면적은 두 해 모두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다.
- 그러나 달성률 추세를 보면, 수립완료 여부만을 따지는 ‘먹거리 전략 2030 추진’을 제외하면 임산부 및 영유아 월평균 관리 인원과 도시텃밭 조성면적은 하향 추세이다. 다만 2020년과 2021년도 실적치를 비교해보면, 도시텃밭 조성면적은 증가하였다.
- 서울 먹거리전략 2030 추진은 2020년도에 전략이 수립되고, 2021년 10월 서울특별시 먹거리정책 5개년 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되면서 세부사업의 목표가 달성되었다. 이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실무 TF 구성, 토론회 개최, 영역별 전문가 자문을 비롯하여 다양한 민관 협치 방식이 중시된 것은 바람직하다.
  - 이 영역은 2022년도에는 자치구 확산 역량 강화, 2023년도 중간평가, 2024년도에는 성과 진단을 성과지표로 선정하는 등 2030년까지 지속적 추진이 계획되어 있으나<sup>5)</sup> 기선정된 세부 사업이나 성과지표가 포괄적이라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예를 들어 결식아동 지원이나 어르신 급식 지원과 같은 세부사업은 구체적이기는 하나 너무 세부적이어서 대안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2022년 이후의 먹거리 보장 이행과제의 세부사업으로 ‘먹거리 보장 기준 수립 및 추진’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 새로운 세부사업을 통하여 서울시민 먹거리 보장 기준이 제시되고 성과목표가 도출되는 한편 세부지침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 세부사업의 성과지표는 ‘먹거리 보장 기준 수립 여부 및 추진 여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현재로서는 해당 이행과제에 대한 적절한 세부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효과 평가를 수행하여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 이 사업의 수행 주체가 25개 자치구 보건소이므로 서울시와 자치구, 보건소의 긴밀한 협업 추진에 유의해야 한다.
- 도시농업 참여인구가 2011년의 4만 5,000명에서 2020년의 66만 명으로 약 14배 증가한 것에 비해 도시농업 활동공간은 동 기간에 29ha에서 212ha로 7.3배 증가하는 데 그쳐, 도시농업 활동공간이 도시농업 참여인구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시의 도시농업 활동공간의 증가세가 둔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도시텃밭 조성면적이라는 성과지표가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농업 지원 이행과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지표로서 지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5) '제2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2020~2024)' 6쪽 참조.

- 앞으로 도시텃밭 조성면적을 서울시내에서 대폭 확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상텃밭을 비롯하여 도심 속 생활권 텃밭 조성에 집중하는 한편 서울 근교의 친환경농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
  - 2022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토지와 공간확보의 책무가 부여된 만큼 앞으로 학교텃밭의 확대가 기대된다.
- 도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도시농업의 역할 증대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농업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기 위하여 세부사업과 성과지표의 추가가 필요하다.
- 기존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운영이라는 세부사업과 도시텃밭 조성면적이라는 성과지표를 통해 도시농업 활동공간을 넓히는 데 집중하되, 장기적으로는 도시농업 지원센터 지정·운영이라는 세부사업과 도시농업 지원센터 설치개수라는 성과지표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도시농업 지원센터는 도시농업 교육, 현장 지도, 기술 상담, 농자재 보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존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도 있고 새로운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도 있다. 기존의 마을 조직이나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함으로써 행정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다. 자치구별 1개소씩 총 25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장기목표로 정한다.

### 2.1.3.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연번	이행과제	세부사업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30
				실적치/ 목표치	실적치/ 목표치	달성 여부 (달성률)	달성 여부 (달성률)	목표 달성률 추세
8	산모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 (출생아 대비)(%)	50/ 50	60/ 60	달성 (100)	달성 (100)	70% -
9	5세 미만 사망자 수를 1,000명당 2.5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을 근절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 (출생아 대비)(%)	50/ 50	60/ 60	달성 (100)	달성 (100)	70% -
10	법정감염병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 시 관리와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감염병 치료체계를 구축한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감염병 대응 민관합동 훈련(회)	0/ 14	0/ 15	미달성 (0)	미달성 (0)	운영 ↘
11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감염성 질환을 줄이고, 정신건강과 웰빙 증진정책을 통하여 자살 건수를 대폭 줄인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2단계 자살예방 추진	자살률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 (명)	22.7/ 21	통계치 미발표	일부달성 (91.9)	-	19명
12	마약, 알코올, 흡연 및 도박 등 모든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강화한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중독자 재활서비스 건수 (건)	1,219/ 1,600	1,702/ 1,700	일부달성 (76.2)	달성 (100.1)	2,500건 ↗
13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건수를 2015년의 절반으로 줄인다.	교통사고사망자 획적 감축을 위한 교통안전 강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명)	219/212	240/180	일부달성 (99.5)	일부달성 (66.7)	감소 ↘

연번	이행과제	세부사업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30
				실적치/ 목표치	실적치/ 목표치	달성 여부 (달성률)	달성 여부 (달성률)	목표 달성률 추세
14	건강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가건강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방문건강 등록관리 대상자 수(명)	300,000/ 300,000	300,000/ 300,000	달성 (100)	달성 (100)	300,000 명 -
15	서울형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비중을 제고한다	서울형 보건지소 확충	서울형 보건지소 수 (개소 수)	36/ 36	37/ 40	달성 (100)	일부달성 (92.5)	운영 ↘
16	유해물질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대책을 강화한다.	환경보건·독성 관리센터 설치·운영	환경보건·독성 관리센터 설치·운영	설치준비/ 2021년까지 설치	설치완료 및 운영/21년 까지 설치	달성	달성	운영 ↗

-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을 위해서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지원, 감염병 대응, 자살예방, 중독관리,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저감, 어르신 건강, 공공보건, 유해물질 대책 등 8가지의 이행과제가 설정되었다.
- 먼저 달성률 추세를 성과지표로 보면, 중독자 재활서비스 건수와 환경보건·독성관리센터 설치 운영만 상향 추세이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출생아 대비)과 방문건강 등록 관리 대상자 수는 유지, 그리고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서울형 보건지소 수는 하향 추세를 보였다. 감염병 대응 민관합동훈련은 실적이 전무하였고, 자살률은 2021년도 통계치 미발표로 추세를 알 수 없었다.
- 2020년과 2021년도 실적치를 비교하여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과 서울형 보건지소 수만 상향 추세를 보여 달성률 추세와 상이하였고 나머지 지표들은 달성률 추세와 동일하다.
- 전체 8개 지표 중에서 2020년과 2021년 모두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 (출생아 대비), 방문건강 등록관리 대상자 수, 그리고 환경보건·독성관리센터 설치·운영이다. 중독자 재활서비스 건수는 2020년에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2021년 목표 1,700건을 달성하였고. 환경보건·독성관리센터는 2022년도 이후 2030년까지 운영을 목표로 설정하였는데, 2021년에 설치 및 운영 목표를 달성하였다. 따라서 2022년 이후에는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관찰할 필요가 있다.
- 반면에 감염병 합동대응 훈련은 2020년, 2021년 모두 각각 14건, 15건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적은 전무하다. 지표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 지표는 같은 지표가 중복되어 평가되고 있는바,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자살률(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은 2021년 통계치가 발표되지 않아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특성과 OECD 회원국 평균 11.0명 보다 2배 이상 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sup>6)</sup>, 더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참여 프로그램과 자살 예방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여 자살률 저감에 노력해야 한다.
-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212명에서 2021년 180명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19명에서 240명으로 증가하여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시내 도로의 속도제한을 완화할 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방문건강 등록관리 대상자 수는 2030년 300,000명이며 매년 목표와 실적 또한 300,000이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노령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목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

#### 2.1.4.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연번	이행과제	세부사업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30
				실적치/ 목표치	실적치/ 목표치	달성 여부 (달성률)	달성 여부 (달성률)	목표 달성률 추세
17	취학 전 영·유아들이 양질의 보호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3.8/ 43.0	46.7/ 46.0	달성 (101.9)	달성 (101.5)	60% ↘
18	모든 서울시민이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기술훈련, 직업훈련, 대학교육 등을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	서울시민대학 운영	서울시민대학 참여 학습자수 (명)	41,138/ 21,700	127,715/ 29,000	달성 (189.6)	달성 (440.4)	42,560명 ↗
19	서울시의 청소년과 성인들이 취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취득할 기회를 확대한다.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기술교육원 교육수료율 (%)	89/ 89	89.2/ 89.2	달성 (100)	달성 (100)	90% -
20	교육에서의 성별 및 장애인 격차를 해소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강화한다. <sup>7)</sup>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훈련교육 참여자 수(명)	34,000/ 25,000	32,640/ 30,000	달성 (136)	달성 (108.8)	50,000명 ↘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지원 시설 수(개소)	131/ 127	131/ 130	달성 (103.1)	달성 (100.8)	150개소 ↘
21	어떠한 서울시민도 글자해독능력, 산술능력, 기본적인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능력 부족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정보화교육 이수자 수(명)	18,000/ 18,000	18,500/ 18,500	달성 (100)	달성 (100)	21,000명 -
22	서울시민에게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한다.	지속가능발전 및 '전환도시 서울' 교육 실시	교육 이수자수 (명)	3,670/ 1000	4657/ 1100	달성 (367)	달성 (423.4)	2,000명 ↗

6)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2022), 2022 자살예방백서, pp.118.

7) '제2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에 있는 이행과제 20은 성별 격차 해소와 여성 역량 강화인데,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인 세부사업 21이 이행과제 20에 포함되어 있어 이행과제 20의 내용을 상기와 같이 수정함.

-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 전략의 5대 과제 중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과제는 서울의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되며, 서울시민들에게 취업과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확대하는 전략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6가지 이행과제가 선정이 되고 목표를 수행하는 세부사업과 성과지표로 구성이 되었다.
- 먼저 달성률 추세를 보면, 서울시민대학 참여학습자 수와 전환도시 서울 교육이수자 수는 상향 추세를 보인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훈련교육 참여자 수 및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시설 수는 하향 추세를 보였고 나머지 지표들은 유지였다.
- 2020년과 2021년 실적치를 비교하여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기술교육원 교육수료율과 정보화교육 이수자는 상승,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시설 수는 유지로 달성률 추세와 상이하였고, 나머지 지표들은 달성률 추세와 동일하였다.
- 2021년도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100% 이상으로 순탄하게 달성하는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이행과제 18번, 20번 및 22번의 지표를 보면 서울시민대학 참여학습자 수, 여성능력개발원의 교육참여자 수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 이수자 수로 되어 있어서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달성률을 보였는데 향후 목표치나 지표를 재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 2020년과 2021년도 실적을 비교하여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기술교육원 수료율, 장애인 지원 재활시설 지원시설 수 및 정보화 교육이수자 수는 목표달성을 하고는 있지만, 달성률이나 연도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이수자 수를 늘려서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전략을 잘 이행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지표는 22년 2명 중 1명이 이용하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데 중대규모 시설을 매입하거나 이에 따른 보육교사 및 다양한 인력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목표가 같이 달성되어야 하는데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 특히 보육교사의 처우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 여부를 판단하는 세심한 지표가 설정되도록 개선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서울시민대학 운영사업은 인문교양을 함양하고 시민주도의 학습기회를 촉진하면서 양질의 기술 직업훈련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2020년, 2021년 달성률이 매우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초연결 네트워크 지능사회를 실현해 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트렌드와 기술 활용에 대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을 통한 취업 능력 제고 사업에서는 청소년과 성인들의 진로 및 취업 기술과정과 강사들의 취업 및 초중고에서도 트렌드와 관련된 멘토링 교육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시민 교육도 신산업분야에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디지털 기술 관련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및 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성과지표의 목표인 지원시설 수를 늘리는 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쉽지 않은 듯하나, 2030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활시설 사업 예산확보에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주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스마트기기 활용법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과정을 개발하여 정보화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전환도시 서울교육의 지표를 보면 2020년 367%, 2021년 423.4%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시민과 공무원 위원회 등에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을 하였는데 목표치를 더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이 된다.

### 2.1.5.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및 여성의 역량 강화

연번	이행과제	세부사업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30
				실적치/ 목표치	실적치/ 목표치	달성 여부 (달성률)	달성 여부 (달성률)	목표 달성률 추세
23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앤다.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 젠더거버넌스 운영	성인지 정책제안 활동 사업 수 (건)	87/ 80	69/ 90	달성 (108.8)	일부달성 (76.7)	120건 ↘
24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앤다.	여성안심특별시 서울	안심이 앱 다운로드(건수)	150,000/ 150,000	170,000/ 200,000	달성 (100)	일부달성 (85)	30만건 ↘
25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호정책, 가정 내 책임 공유 촉진을 통하여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정 개소 수(개소)	197/ 197	250/ 250	달성 (100)	달성 (100)	380 개소 -
26	여성이 남성과 공평하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보장한다.	여성관리자 양성	여성관리자 양성비율(% <sup>8)</sup> )	27.8/ 24.6	30.4/ 26.3	달성 (113)	달성 (115.6)	29.0% ↗

-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및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성평등 서울, 젠더거버넌스 운영, 여성안심특별시 서울,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여성관리자 양성 등 4가지 세부 사업이 설정되었다.

- 달성률 추세의 경우, 여성관리자 양성비율은 상향,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정 개소 수는

8) 여성관리자 양성비율(%)은 여성관리자 비율을 의미함.

유지, 그리고 성인지 정책제안 활동 사업 수와 안심이 앱 다운로드 건수는 하향 추세를 보였다.

- 2020년과 2021년의 실적치를 비교하여 보면, 성인지 정책제안 활동 사업 수와 안심이 앱 다운로드 건수는 상승하여 달성률 추세와 상이하였고 나머지 두 지표는 달성률 추세와 동일하였다.
- 지표상으로 보면 2021년 목표를 초과달성한 지표는 여성관리자 양성비율이다. 여성관리자 양성비율은 2030년 29%를 목표로 하였는데 2021년도에 30.4%를 달성하였다. 본 지표는 '여성관리자 비율'로 정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 기업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로 지표에 대한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여성관리자의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2030년 목표는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 반면에 성인지 정책제안 활동 사업 수는 2030년도 120건인데 반해 2021년도에 69건을 달성하여 당해연도 목표인 90건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전년도 87건에 비해서도 감소하였다. 지표의 적절성 또는 시책 현장에서의 점검이 요구된다.
-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정 개소 수는 2030년 380개소 지정 목표 대비 2021년도 250개소 지정을 목표로 하였으며, 당해연도에 목표 달성하였다.
- 안심이 앱 다운로드 건수는 170,000건으로 전년 대비는 증가하였으나 목표 200,000건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앤다는 이행과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더욱 적극적인 대안 지표개발이 요구된다.

## 2.2 활력 찬 경제정의 도시

### 2.2.1 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및 에너지 효율제고

연 번	이행과제	세부사업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30
				실적치/ 목표치	실적치/ 목표치	달성 여부 (달성률)	달성 여부 (달성률)	목표 달성률 추세
27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에너지 바우처 대상 가구 발급률(%)	94.5/ 97.0	89.7/ 97.3	일부달성 (97.4)	일부달성 (92.2)	98.8%
28	신재생에너지 전력이용률 8%를 달성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누계)(MW)	780/ 780	831/ 831	달성 (100)	달성 (100)	2,405 MW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계확수립 및 플랫폼 구축/계확수립	플랫폼 구축/플랫폼 구축	달성	달성	계속 추진
29	건축물 부문과 교통 부문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건물에너지 효율화	그린 리모델링(노후 공공건물) 개소	19/ 20	136/ 136	일부달성 (95)	달성 (100)	1,079 개소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	전기차 보급 대수(누계) (대)	31,029/ 31,444	52,427/ 46,044	일부달성 (98.7)	달성 (113.9)	신차 등록 대비 전기·수소차 비율 50%
30	신재생에너지 기술 분야를 포함한 녹색기술 R&D 지원을 확대하고 7대 녹색산업(신재생에너지, LED, 그린카, 녹색건축, 녹색서비스, 그린IT, 도시자원순환)을 증진한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체제 강화	온실가스 배출량(천톤CO <sub>2</sub> )	45,589/ 37,100	45,305/ 전년대비 감축	일부달성 (77.1)	일부달성 (77.9)	29,600 천톤CO <sub>2</sub>
		녹색 중소기업 지원	녹색 중소기업 지원 수(건)	580/ 405	547/ 425	달성 (143.2)	달성 (128.7)	470건

- <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및 에너지 효율제고>를 위하여 4개의 이행과제가 설정되었고, 구체적으로 7개의 세부사업과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2021년도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5개 성과지표의 달성률이 10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바우처 사업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감축 체제 강화 사업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 달성률 추세를 보면, 에너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그린 리모델링, 전기차 보급 대수(누계),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는 상향,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은 유지,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대상 가구 발급률과 녹색 중소기업 지원 수는 하향 추세를 보였다.
- 2020년과 2021년도 실적치 추세는 달성률 보합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지표가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표들은 달성률 추세와 동일하다.
-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기후 적응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업이므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에너지 기업이나 협동조합과의 협업도 고려 가능하다.

-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관련하여 2021년 서울의 에너지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당해연도의 중요한 사업성과로 볼 수 있다. 특정 시스템의 구축 여부는 2030년, 2050년을 기준으로 추진하는 장기 사업의 지표가 되기는 어렵고 구축된 에너지 정보 시스템의 방문객 수 또는 활용 프로그램 수 등으로 지표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
  - 에너지 정보 시스템 기반을 구축했으므로, 현재 미구축된 부분(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성과 관리 등)을 추가 완료하고, 향후 에너지 정보 통합시스템 로드맵과 발전 방향을 마련하여 당초 목적대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플랫폼 공동 모듈을 활용한 시스템 기능 통합, H/W 및 S/W 통합 및 수요반응 연계 등을 통한 생산-소비량 관리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하여, 2021년 이행과제 목표와 실적치를 비교하면 달성률은 높게 평가될 수 있다.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전력 이용률 8%'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1년 신재생에너지 전력 이용률은 0.9%로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비율 상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에너지 부문의 핵심 정책인 태양광 보급은 2021년 상반기 기준 12.2MW에 그쳐, 목표 대비 26.5%에 그쳤다. 태양광 부지 확보의 문제와 경제성 확보 문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연료전지는 경제성과 입지확보의 문제로 어려움에 부딪친 상황이지만 환경영향평가 개정과 비상전원 활용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기가 발전과 수송부문에서 수소보다 높은 경제성을 보이기 때문에,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수소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가 요구되며, 이에 따른 서울시 수소 전략 역시 재고될 필요가 있다.<sup>9)</sup>
-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68.2%를 건물 부문이 차지하고 에너지 성능이 떨어지는 30년 이상 노후건물이 44%(19년 건물 동수 기준)이므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사업자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공공부문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BRP, Building Retrofit Program)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건물 BRP 지원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단,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사업과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사업은 목표를 넘어서고 있다.
  - 서울시 소유 건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시 대상 건물 관리부서의 업무부담과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건물의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중간조직을 두어 실무부서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민간건물 BRP 확대를 위해서 건물온실가스 배출총량제와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강화(최저 효율제 포함) 등과 같은 획기적인 규제 도입이 필요한데, 이들 규제방안 도입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제도 개선과 지자체의 권한 강화가 요구된다.<sup>10)</sup>

9) 유정민, 남현정(2021) 2021 '탄소중립' 위한 서울시 그린뉴딜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서울연구원 pp. 27, <https://www.si.re.kr/node/65519>

10) 유정민, 남현정(2021) 2021 '탄소중립' 위한 서울시 그린뉴딜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서울연구원 pp. 27, <https://www.si.re.kr/node/65519>

- 전기차 보급과 관련하여, 전기차 보급 대수는 서울시의 정책 추진으로 인한 직접 결과로 보기 어렵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관련 내용을 지표로 삼고, 충전 인프라에 재생 에너지가 결합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충전 개소’ 등이 지표가 될 수 있다.
- 서울시의 그린뉴딜 추진 사업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체제 강화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관련 계획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으로 새로 수립되었다. 기존의 서울시 그린뉴딜 세부계획을 보면, 2022년까지 그린빌딩, 그린모빌리티, 그린에너지, 숲, 사이클 등 5개 사업 분야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동시에 관련 일자리를 마련하고 늘릴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사업명 변경에도 5대 분야 사업은 그대로 진행 중이며 성과지표는 일자리 창출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변경되었다.
- 이 영역에서 전력자립률을 중요한 지표로 검토가 필요하다. 전력자립률은 지역 내에서 얼마만큼 자체적으로 전력을 조달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이다. 2021년(1-12월) 서울시 발전량은 5,122GWh이고, 전력소비량은 45,787GWh로 전력자립률은 11.18%이다.<sup>11)</sup> 2019년 3.5%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 발전용량 800MW 규모인 서울복합화력발전소(옛 서울 마포구 당인리발전소)가 본격 가동되었기 때문이다. 서울복합화력발전소는 액화 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며, 2021년 복합화력 발전량은 4,625GWh로 전체 발전량 5,122GWh의 약 90.3%를 차지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413GWh로 전체 발전량의 8.0%로 2020년의 440GWh(9.5 %)에 비해 줄어들었다. 전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에너지자립률을 고려하되,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도 함께 증가될 필요가 있다.

## 2.2.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연번	이행과제	세부사업	성과지표	2020년 실적치/ 목표치	2021년 실적치/ 목표치	2020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21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률 추세
31	타 지역과의 상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GDP, GRDP의 성장을 도모한다.	지역자원 교류의 거점 공간 「상생상회」 조성·운영	상생상회 월 이용자 수(명)	33,160/ 5,000	36,500/ 21,000	달성 (663.2)	달성 (173.8)	32,000명 ↘
32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을 지원하고, 창의·혁신을 통한 산업 다각화로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수(개)	1,246/ 730	1,110/ 946	달성 (170.7)	달성 (117.3)	1,800개 ↘
33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수(개)	5,627/ 5,380	6,140/ 5,800	달성 (104.6)	달성 (105.9)	6,500개 ↗

11) 2021년도판 한국전력통계(제90호), [https://home.kepco.co.kr/kepco/KO/ntcob/list.do?boardCd=BRD\\_000099&menuCd=FN05030103](https://home.kepco.co.kr/kepco/KO/ntcob/list.do?boardCd=BRD_000099&menuCd=FN05030103)

연 번	이행과제	세부사업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30 목표
				실적치/ 목표치	실적치/ 목표치	달성 여부 (달성률)	달성 여부 (달성률)	
	원한다.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선정 수(개)	100/ 100	50/ 50	달성 (100)	달성 (100)	50개 -
34	성별임금격차 개선으로 성평등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	성평등임금 컨설팅 기관 수 (개)	23/ 40	0/ 40	일부달성 (57.5)	미달성 (0)	50개 ↘
35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실업 상태의 청년 비율을 대폭 줄인다.	청년 뉴딜일자리 추진	뉴딜일자리 참여자 수(명)	4,600/ 4,600	4,200/ 4,200	달성 (100)	달성 (100)	4,200명 -
36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노동권익센터 운영	노동자권리 구제건수 (건) (서울노동권익센터)	160/ 160	154/ 180	달성 (100)	일부달성 (85.6)	300건 ↘
37	서울시의 고유문화와 특산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고품격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입안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다.	서울 관광 중기발전계획 추진	관광기업 지원 수(개)	1,446/ 800	871/ 900	달성 (180.8)	일부달성 (96.8)	2,000개 ↘
		관광분야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관광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여부	'22년 하반기 검토 예정/ 관광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성 검토	'22년 하반기 검토 예정/ 관광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성 검토	-	-	검토 시행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7개의 세부 이행 목표가 설정되었고, 모두 9개의 세부사업과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2021년도 목표 달성률을 보면 9개 지표 중 상생상회 월 이용자 수,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수,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수,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선정 수, 뉴딜일자리 참여자 수 등 5개 지표는 목표를 100% 달성하였고, 노동자 권리 구제 건수는 85.6%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성평등 임금컨설팅 기관 수는 달성률이 0%이다. 또한 관광기업 지원 수는 2020년도에는 목표를 180.8% 달성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96.8%의 달성률을 보였다. 관광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지표는 아직 측정 시기가 미도래하였다.
- 달성률 추세를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수 지표만 상향 추세이고,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선정 수와 뉴딜일자리 참여자 수는 유지, 상생상회 월 이용자 수,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수, 성평등 임금 컨설팅 기관 수, 노동자 권리 구제 건수 및 관광기업 지원 수 지표는 하향 추세이다.
- 2020년도와 2021년도 실적치는 상생상회 월 이용자 수가 상승하여 달성률과 상반된 추세를 보였고, 달성률 유지인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선정 수와 뉴딜일자리 참여자 수는 감소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지표들은 달성률과 동일한 추세를 보였다.
- 상생상회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뿐 아니라 지역 중·소농들의 판로지원 목적도 있으므로 상생상회 월 이용자 수 지표뿐 아니라 월 이용자당 소비액 지표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에서는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수뿐 아니라 기업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도 매우 중요하므로 매출액 지표와 종사자 지표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서울형 강소기업지원과 관련하여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선정 수가 2020년 100개에서 2021년부터 증장기적으로도 50개에 불과하여 서울의 규모에 비해 매우 소극적이므로 적극적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청년 뉴딜일자리 추진과 관련하여 2020년 4,600명에서 이후 증장기 4,200명으로 목표치가 설정된바 실업 상태의 청년 비율을 대폭 줄이기(이행과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극적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서울 관광 중기발전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관광기업 지원 수뿐 아니라 관광객 수, 1인당 관광소비액, 관광산업 종사자 수도 매우 중요하므로 지표 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2.3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사회기반 시설 확충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장려

연번	이행과제	세부사업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30
				실적치/ 목표치	실적치/ 목표치	달성 여부 (달성률)	달성 여부 (달성률)	목표 달성률 추세
38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과 행복한 삶을 위한 양질의 친환경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	61.4/ 65.7	통계치 미발표/ 66.0%	일부달성 (93.5)	-	67.3%
39	미래 기술 기반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수 (개)	1,246/ 730	1,110/ 946	달성 (170.7)	달성 (117.3)	1,800 개
40	연구개발 인력 및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기반 산업경쟁력을 높인다.	「서울형 R&D」 지원사업	연구개발비 지원금액 (백만원)	47,721/ 47,721	38,233/ 38,233	달성 (100)	달성 (100)	38,233 백만원
		AI 인재양성	AI 분야 인재 양성 수(명)	450/ 220	700/ 250	달성 (204.5)	달성 (280)	500 명

-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사회기반 시설 확충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장려>를 위하여 3개의 세부이행 목표가 설정되었고, 모두 4개의 세부사업과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2021년도 목표 달성률을 보면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수, 연구개발비 지원금액, AI 분야 인재양성 수의 3개 지표는 목표를 100% 달성하였고,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2020년도에는 목표를 93.5% 달성하였고, 2021년도 실적치는 2023년 3월 통계 수치 발표 예정으로 미제시되었다.
- 달성률 추세를 보면, AI 분야 인재 양성 수 지표는 상향 추세이나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수 지표는 하향 추세이고, 서울형 R&D 지원금액은 유지였으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동일 금액이다.

- 2020년도와 2021년도의 실적치를 비교해보면 서울형 R&D 지원금액이 감소하여 달성률 추세와 상이하였고, 나머지 지표들은 달성률과 동일한 추세를 보였다.
-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의 동력인 만큼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수 지표뿐 아니라 그 기업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또는 매출액) 및 종사자 수 지표도 추가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데 상향 추세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 서울형 R&D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인력 및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기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 지원금액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AI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실적치가 상향 추세이나 목표치가 소극적이므로 수요를 반영하여 적극적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2.4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

연번	이행과제	세부사업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30
				실적치/ 목표치	실적치/ 목표치	달성 여부 (달성률)	달성 여부 (달성률)	목표 달성률 추세
41	국가 및 서울시의 사회보장 제도를 통하여, 중위소득 하위 43% 이하의 생활을 하는 서울 시민이 없도록 노력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명)	338,981/ 338,981	355,930/ 355,930	달성 (100)	달성 (100)	552,164 명
				-	-	-	-	-
42	모든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단체 수 (누적) (개)	83/ 65	93/ 70	달성 (127.7)	달성 (132.9)	135 개
				/	/	/	/	
43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행을 개선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인권영향평가제도	인권영향평가 실시 건수 (건)	3/ 2	3/ 3	달성 (150)	달성 (100)	3건
				\	\	\	\	
4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 정책 등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서울형 생활임금제 정착 및 확산	생활임금 지급률 (생활임금 적용대상 기관) (%)	100/ 100	100/ 100	달성 (100)	달성 (100)	100%
				-	-	-	-	

-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을 위하여 4개의 세부 이행목표가 설정되었고, 모두 4개의 세부사업과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2021년도 목표달성률을 보면 4개 지표 중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단체 수, 인권영향평가 실시 건수, 생활임금 지급률 등 4개 모든 지표가 목표를 100% 달성하였다.
- 2020년도와 2021년도 달성률 추세를 보면,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단체수 지표는 상향 추세이고, 인권영향평가 실시 건수 지표는 하향 추세이지만, 2030목표가 3건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서 서울시 산하 기관 중 3곳 이상이 이를 실시하도록 계획하면 무난히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이행계획이 서울시민 전체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권영향평가는 인권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기관 혹은 기업이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함이므로 최소한 주요 사업인 인권영향평가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각 기관 및 기업들에 권고하여야 한다.

- 2020년과 2021년도 성과지표 실적치를 비교하여 보면,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과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단체 수는 상승, 인권영향평가 실시 건수와 생활임금 지급률은 변동이 없었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성과지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으로 공급자중심의 지표인데, 이행과제에는 서울시민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수요자 중심의 지표 즉, '복지사각지대 해소 수혜자 수'로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성과지표가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단체 수인데, 지원단체 활동 보고서를 제출받고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증액이나 감액 등 향후 지원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인권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하여 공급자 중심의 평가 실시뿐 아니라 서울시 홈페이지 민원란에 시민들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조치건수를 성과지표로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서울형 생활임금제 정착 및 확산과 관련하여 생활임금 지급률 지표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생활임금 지급 대상기관 수 및 대상자 수 지표도 추가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향후 생활임금 적용 대상기관을 민간까지 확산하는 사업인 만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되 민간기업을 적용 대상기관으로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3 쾌적한 기후환경 도시

### 2.3.1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도시 조성

연번	이행과제	세부사업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30
				실적치/ 목표치	실적치/ 목표치	달성 여부 (달성률)	달성 여부 (달성률)	목표 달성률 추세
45	서울시민 누구나 아리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고 수질검사 항목을 강화한다.	아리수 안심 서울 조성	노후상수관 정비율(%)	98.5/	98.8/	달성	달성	유지
				98.5	98.8	(100)	(100)	-
46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 오염총량을 관리하며 방류수질을 개선하고 노후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등으로 한강수계 수질을 개선한다.	CSOs 관리를 통한 하천 수질개선	CSOs 저류조 설치 (m³)	5.8만/	5.8만/	달성	달성	21.4만
				5.8만	5.8만	(100)	(100)	m³
47	빗물관리시설을 확충하고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빗물관리(이용)시설 확충 사업	빗물관리시설 확충 개소 (개소)	180/	190/	달성	달성	230
				180	190	(100)	(100)	개소
48	한강수계 유역의 수질, 수량, 수생생태계를 통합 관리한다.	한강유역 통합 물관리 활동	한강유역 통합 물관리 활동	이행/	이행/	달성	달성	이행
				이행	이행			-
49	한강 숲을 조성하고 천변습지와 자연 호안을 조성하는 등으로 한강 수계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추진	한강숲 조성(주)	108.9만/	11.6만/	일부달성	달성	3만주
				109만(누적)	11만	(99.5)	(105.3)	식재
			자연형 호안 복원 (km)	4.6/	1.7/	달성	달성	8.2km
			4.6	1.7	(100)	(100)	복원	
							-	
50	물 관리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한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민간지원단체 수 (개)	12/	12/	달성	달성	12개
				12	12	(100)	(100)	-

-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도시 조성> 과제를 위하여 6개 이행과제와 6개 세부사업, 7개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한강수계 자연성 회복이라는 이행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다른 이행과제의 성과지표와 달리 2개가 설정되어 있다.
- 2021년도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한강숲 조성이 105.3%의 달성률을 보이고 나머지 성과지표는 모두 100% 달성률을 보인다. 따라서 달성률 추세도 한강숲 조성만 상향 추세를 보이고, 나머지 지표들은 유지를 보이고 있다.
- 2020년과 2021년도 실적치를 비교하여 추세를 보면, 노후상수관 정비율, 빗물관리시설 확충 개소는 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CSOs저류조 설치, 한강유역 통합 물관리 활동 및 민간지원단체 수 등은 유지를 보이고 있다. 한강숲 조성과 자연형 호안 복원은 2020년까지 누적 자료이고 2021년도 자료는 당년도 실적치로 추세 분석이 어렵다.
- 아리수 안심 서울 조성을 위한 노후 상수관 정비는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왔다. 양질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 수도 공급 기반시설인 상수도관의 노후화를 방지하는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성과지표인 노후 상수관 정비율은 서울시 관내 정비 대상 노후 상수관 길이

- 대비 1년간 정비된 노후 상수관 길이를 더한 누적치를 말한다. 누적치로 표현된 연차별 성과지표 실적치를 보면, 현재까지 노후 상수관 정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정비 대상 노후 상수도관 연장을 새로이 발굴하여 목표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 CSOs(Combined Sewer Overflows: 합류식 하수관거의 월류수) 관리를 통한 하천 수질 개선 사업은 해당 이행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사업이라 판단된다. 다만 성과지표인 CSOs 저류조 설치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2024년 응봉 지역에 4,000㎡ 시설용량의 CSOs 저류조가 설치될 때까지는 아무런 추가 실적이 없는데도 매년 달성률이 100%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이행과제의 성과지표는 강우 시 CSOs 배출량 대비 처리량 비율로 정하고 매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다른 대안으로 CSOs 관리라는 세부사업 대신에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이 새로운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로 하수관로 정비율이 적절하다.
  - 빗물관리(이용) 시설 확충사업은 2020년 이후 매년 10개소씩 기계적으로 확충해나가는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으며 2020년, 2021년 모두 목표치를 100% 달성했다. 현 시점에서 이 세부사업과 성과지표가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며 2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첫째, 물재이용 확대라는 세부사업과 물재이용률이라는 성과지표를 대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빗물, 중수도, 하수처리수, 유출 지하수 등 도시 내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물재이용 확대는 물순환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성과지표는 위 4가지 수자원에 대한 물재이용률이 될 것이다.
    - 둘째, 물순환회복 공간면적을 확대한다는 세부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 앞으로 물순환 회복 사업으로 증가한 물순환 관리면적을 성과지표로 정하여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 한강유역 통합 물관리 활동 사업이 한강 수계 통합관리라는 이행과제의 세부사업과 성과지표로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사업은 결국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만으로 매년 목표치를 쉽게 달성하고 있다.
    -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행과제는 ‘하천복개를 철거하고 정비하여 도심하천의 생태를 회복한다’이다. 이 경우 세부사업은 ‘하천 복개 철거 및 복원 사업’이 되고, 성과지표는 ‘복개하천 철거 연장’이 될 것이다.
  - 한강 숲 조성과 자연형 호안 복원은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추진 사업에 있어 2가지 핵심적인 정책과제이므로 앞으로도 성과지표로서 지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두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치들이 현시점에서 적정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왔다. 하지만 성과지표인 민간

지원단체 수가 매년 12개 단체로 고정되어 있어 지표를 기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성과지표가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 대체 지표로 시민참여 관리 하천수를 검토해볼 수 있다. 이 새로운 성과지표는 서울시 관내 법정 하천 수 대비 서울시 지원 시민단체가 관리하는 하천의 수와 시민 모니터링 관리 하천의 수의 합계로 계산할 수 있다.

### 2.3.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지원

연번	이행과제	세부사업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30
				실적치/ 목표치	실적치/ 목표치	달성 여부 (달성률)	달성 여부 (달성률)	목표 달성률 추세
51	환경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대 목표 추진	서울 SDGs 체계 이행	계획수립/ 계획수립	사업자발표/ 사업자발표	달성	달성	성과점검 및 미래 사업발굴 -
52	천연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자원순환시행계 획 수립·추진	(자원)순환이용률 (%)	통계치 미발표/ 62%	통계치 미발표/ 66%			70%
53	서울시민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인다.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및 종합 계획 수립추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 (%) (‘14년 대비)	11.5/ 11.5	12.0/ 12.0	달성 (100)	달성 (100)	15.9% -
54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고 유해폐기물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서울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강화	환경보건위원회 운영	7/ 5	6/ 5	달성 (140)	달성 (120)	5회 ↘
55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 발생을 대폭 줄인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로 자원순환도시 구축	생활폐기물 감축률 (%)	-0.90 <sup>12)</sup> / 4.00	0.90/ 5.00	미달성 (-22.5)	미달성 (18)	10% ↗
56	서울지역 내 기업이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발행하도록 권고 지원한다.	서울 SDGs 2030의 민간실천 촉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 기업(단체) 수	84/ 65	25/ 70	달성 (129.2)	미달성 (35.7)	100건 ↘
57	시민의 친환경제품 소비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친환경제품 구매 등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시행을 확대한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관리	녹색제품 구매율 (%)	55.9/ 54.0	35.6/ 56.0	달성 (103.5)	일부달성 (63.6)	63% ↘
58	모든 시민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 양식을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지속가능발전 및 '전환도시 서울' 교육 실시	교육 이수자 수 (명)	3,670/ 1,000	4,657/ 1,100	달성 (367)	달성 (423.4)	2,000명 ↗
59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소비와 생산을 부추기는 조세 및 보조금 등 제도를 점검한 후 이를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친환경금고기준	친환경금고 지정기준	-/ 전문가 자문 등 검토	개정안료/ 전문가 자문 등 검토	달성	달성	개정 및 운영 <sup>13)</sup> ↗

12)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감축률을 마이너스(-)비율로 표기함.

13) 친환경금고기준은 '21년도에 마련되었음.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지원>을 위하여 9개의 이행과제가 설정되었고, 모두 9개의 세부사업과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2021년도 목표와 실적치를 비교하여 달성률을 보면, SDGs 이행계획 수립 여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환경보건위원회 연간 회의 운영 횟수, 전환교육 이수자 수 등은 달성률이 10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감축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녹색제품 구매율은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 달성률 추세를 보면, 전환교육 이수자 수만 상향 추세이고, SDGs 체계 이행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은 유지, 그리고 환경보건위원회 운영 횟수, 생활폐기물 감축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기업 수, 녹색 제품 구매 비율은 하향 추세를 보였다.
- 2020년도와 2021년도 실적치의 추세의 경우, 상승 추세를 보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률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량적 지표의 추세가 달성률 추세와 동일하다.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종합대책으로써 SDGs 체계 이행이 지표로 제시되었는데, 정성지표인 SDGs 체계 이행은 2020년 2차 기본계획 연계 안을 수립하고 '지속가능 생산과 소비 대책'에 대한 미래사업 및 지표 발굴 등 이행 및 관리체계를 마련 중이다.
- 환경보건 관련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환경보건위원회 개최 여부가 장기적인 지표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감축이나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정보 제공 및 소통 관련 지표로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
- (자원)순환 이용률과 관련하여, 최종 통계는 2022년과 2023년 8월에 발표 예정이어서 평가에 포함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년도와 발표되는 통계 기준년도의 시간 차이가 있을 경우, 통계치 기준년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등 성과지표 점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자원순환 이용률을 지표로 설정 시,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참고했는데 2017년 67.1%로 직전 2015년과 2016년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다. 2019년,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지표로 지역총생산 대비 총 폐기물 발생량도 활용 가능하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 총생산 대비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추세였다. 서울시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에 따르면, 자원순환 이용률은 2018년 70.3%에서 2027년 82%의 목표를 정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자원순환 이용률 목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서울시는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녹색금융 이행실적을 추가하였다. 장기적으로 탈석탄 및 탈탄소 투자 체계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활용하거나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자원순환 부문에서 추진 중인 구체적인 사업들은 공공 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 공공 재활용 선별 시설 신/증설, 업사이클 종합 클러스터 조성, 리엔업사이클 플라자, 1회용품 줄이기 문화 확산, 폐기물 시설 처리 기반 확충, 재활용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자원순환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업사이클 종합 클러스터 추진이 보류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되었다.<sup>14)</sup>
  - 향후 생활폐기물 매립 제로를 위한 추가적인 자원회수시설 확충이 과제이며, 소각 확대 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막기 위해 폐기물 원천감량과 소각열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병행되어야 하고 폐기물 원천감량을 위해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에코디자인’과 같은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sup>15)</sup>

### 2.3.3 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 조성

연번	이행과제	세부사업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30 목표
				실적치/ 목표치	실적치/ 목표치	달성 여부 (달성률)	달성 여부 (달성률)	
60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복구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풍수해 예방 및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	침수취약지역 해소 완료율 (%)	85/ 85	88/ 88	달성 (100)	달성 (100)	유지
				-	-	-	-	-
61	서울시 정책, 전략, 계획에 기후변화 대책을 통합하여 추진한다.	기후환경 분야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평가	법정계획의 기후변화 대응 반영률 (%)	75/15	60/17	달성 (500)	달성 (352.9)	30% ↘
62	기후변화교육 대상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치구 협력 및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 역량을 강화한다.	에너지 자립마을 2.0	에너지 자립마을 수 (개)	34/ 100	23/ 200	미달성 (34)	미달성 (11.5)	600개 ↘
		기후변화 교육_찾아가는 에너지 놀이터	기후변화 교육 이수자 수(누계) (명)	10,533/ 10,533	0/ -16)	달성 (100)	미달성 (0)	15,000명 ↘
63	온실가스를 2005년의 60% 수준으로 감축한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체제 강화	온실가스 배출량 (천톤CO <sub>2</sub> )	45,589/ 37,100	45,305/ 전년대비 감축	일부달성 (77.1)	일부달성 (77.9)	29,600 천톤CO <sub>2</sub> ↗
64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사업을 개선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기후변화기금 확대 및 운용 개선	기후변화기금 지출사업 편성규모 (백만원)	34,792/ 10,000	22,019/ 10,000	달성 (347.9)	달성 (220.2)	10,000 백만원 ↘
65	국제기구의 기후변화 메커니즘에 참여하고 파트너십을 이루어 기후변화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제협력력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기후관련 국제포럼 개최 건수 (회)	0 /0	2/ 2	미달성 (0)	달성 (100)	2회 ↗
				-	-	-	-	-

14) 유정민, 남현정(2021) 2021 '탄소중립' 위한 서울시 그린뉴딜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서울연구원. pp.21-22., <https://www.si.re.kr/node/65519>

15) 유정민, 남현정(2021) 2021 '탄소중립' 위한 서울시 그린뉴딜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서울연구원. pp.28., <https://www.si.re.kr/node/65519>

16) 코로나19 상황으로 '21년 사업추진계획 및 실적 없었음.

- <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 조성>은 서울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역점 영역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6가지 이행목표가 설정되었으며, 총 7개의 이행 사업과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달성률 추세를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 관련 국제 포럼 개최 건수는 상향 추세이고, 침수취약지역 해소 완료율은 유지, 그리고 나머지 지표들은 하향 추세를 보였다.
- 2020년도와 2021년도 실적치를 비교하여 추세를 보면, 침수취약지역 해소 완료율이 상향 추세로 달성률 추세와 상이하고, 나머지 지표들은 모두 달성률 추세와 일치했다. 이중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도에 비하여 2021년도 배출량이 다소 줄어들어 상향 추세로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 2021년도 목표 대비 실적을 비교하면, 침수취약지역 해소 완료율, 법정계획의 기후변화 대응 반영률, 기후변화기금지출사업 규모 및 기후 관련 국제 포럼 개최 건수는 100% 이상 달성했으며, 에너지 자립마을 수, 기후변화 교육 이수자 수,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달성률이 매우 저조하여 이후 정책적 집중이 필요하다.
- 특히 기후변화 교육 이수 관련 지표인 찾아가는 에너지 놀이터 사업은 실적치가 0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행 추진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교육 관련 지표로서 서울시 교육청 주도로 추진 중인 생태 전환 교육 추진 관련 지표로 대체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법정계획의 기후변화 대응 반영률은 탄소 인지 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지표를 설정하고 점검할 수 있다. 2021년도에 탄소 인지 예산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바 있으므로 향후 탄소인지 예산제도가 구체화 되는대로 이와 관련된 지표가 포함될 수 있다.
-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원칙인 형평성과 책임 차원에서 깊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본적으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에 가입한 도시로서 위상과 책임에 맞는 활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표로 설정된 국제 포럼 등의 행사 개최뿐 아니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취약한 국가의 도시의 기후 적응을 위한 협력 등 보다 적극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2.3.4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해양생태계 보전

연 번	이행과제	세부사업	성과지표	2020년 실적치/ 목표치	2021년 실적치/ 목표치	2020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21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률 추세
66	한강 수계의 폐기물과 녹조 발생 등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 현저히 줄인다.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꼼꼼한 수질관리	수질검사 항목수 (개)	331/ 331	336/ 336	달성 (100)	달성 (100)	341개
								-
67	한강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여 서해를 비롯한 해양생태계의 회복력을 증진한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물재생센터 방류수질 관리)	수질오염 총량관리 (물재생센터 방류 수질관리) (mg/ℓ)	0.26/ 0.5	0.25/ 0.48	달성 (148)	달성 (147.9)	0.40~ 0.35 mg/ℓ
								↘
68	한강이 해양생태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 및 인천시와 협력한다.	통합 물 관리 연구	연구기관의 교류·협력 횟수 (회)	3/ 1	9/ 1	달성 (300)	달성 (900)	1회
								↗

-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해양생태계 보전> 과제를 위하여 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이행과제 달성을 위해 3개 세부사업과 3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다.
- 달성률 추세를 보면, 유지와 상향, 하향 추세가 혼재되어 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지표의 경우 소폭 하향 추세를 보이며 연구기관의 교류협력 횟수는 대폭 상향 추세를 보인다. 2020년과 2021년도 실적치를 비교하여 보면 달성률과 달리 3개 지표 모두 상승하였다.
- 2021년도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이행과제 3개가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가 147.9%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나 2020년도의 달성률 148%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통합 물관리 연구사업의 성과지표인 연구기관의 교류 협력 횟수는 900%의 달성률을 보여 연간 1회라는 목표치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상수의 수질관리 사업이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해양생태계 보전> 과제와 ‘한강 수계의 오염 예방 및 저감’ 이행과제의 달성을 위해 적절한 세부사업인지 의문이다. 성과 지표인 수질검사 항목 수도 부적절하다. 정수 수질검사 항목 수를 늘리는 일은 한강수계 오염 예방 및 저감을 통한 해양생태계 보전과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인다. 수질검사 항목 수 지표는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 도시 조성> 과제의 이행과제인 ‘서울시민 누구나 아리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고 수질검사 항목을 강화한다’의 성과지표로 더욱 적절하다. 따라서 이 이행과제를 위한 대체 사업과 대체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 서울에서 발생하는 육상 폐기물의 하천 배출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사업과 지표가 바람직하다. 폐기물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을 비롯한 각종 폐기물의 하천 무단 폐기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 대체 세부사업으로 '한강 부유 쓰레기 관리'를 제안하고 대체 성과지표로 '연간 한강 부유 쓰레기 처리량'을 제안한다.
- 수질오염 총량 관리사업과 성과지표는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목표치의 상향 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해당 이행과제의 달성을 위해 한강의 생태적 건강성을 대표할 수 있는 더 적절한 사업과 지표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강의 동물군과 식물군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는 생물다양성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통합 물관리 연구사업과 연구기관의 교류 협력 횟수 지표는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020년과 2021년의 달성률이 각각 300%, 900%인 점을 고려하면 연 1회라는 목표치의 상향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 2.3.5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

연 번	이행과제	세부사업	성과지표	2020년 실적치/ 목표치	2021년 실적치/ 목표치	2020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21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률 추세
69	서울의 숲, 산, 습지, 하천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한다.	삼천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	나무 식재량 (주)	2,908만/ 2,830만	3,073만/ 3,000만	달성 (102.8)	달성 (102.4)	유지 관리 ↘
70	산림 내 훼손지에 자생수종을 식재하고 산불 예방을 강화하여 수목을 보호하는 등 서울의 산과 숲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안전한 도시 숲 관리	산불 피해면적 (㎡)	0.9/ 1.15만	0.2만/ 1.10만	달성 (121.7)	달성 (181.8)	0.80만㎡ ↗
71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철새보호구역 등 자연생태보호 지역 면적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자연생태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자연생태보호지역 증가면적 (㎡) ('14년 대비)	46,600/ 43,900	190,040/ 50,200	달성 (106.2)	달성 (378.6)	106,600㎡ ↗
72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생물종 복원 및 서식처 확충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한다.	생물종 다양성을 위한 야생생물 증식 및 복원	야생생물 증식 수 (마리)	16,500/ 16,500	10,530/ 17,000	달성 (100)	일부달성 (61.9)	22,000 마리 ↘
73	외래종 유입 및 무단방사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계 교란종 확산의 원인을 제한다.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생태계교란생물 제거 면적 (천㎡)	1,431천/ 1,000천	1,387천/ 1,000천	달성 (143.1)	달성 (138.7)	1,000천㎡ ↘
74	서울시 계획과 개발 과정에 생물 서식공간 및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통합한다.	지속가능성 검토를 통한 법정계획의 생물다양성 증진	생물다양성 증진 제도화 여부	포함 완료/ 평가기준에 포함	포함 완료/ 평가기준에 포함	달성	달성	기준에 생물 다양성 포함

-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 과제를 위하여 6개 이행 과제를 설정하였다. 6개 이행과제의 달성을 위해 각각 6개 세부사업과 6개 성과지표를 설정 하였다. 2021년도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대부분 100% 이상의 달성률을 보인다. 다만 야생생물 증식 수의 경우 61.9%의 달성률을 보여 그 원인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 달성률 추세를 보면, 우선 나무 식재량과 야생생물 증식 수, 생태계교란생물 제거면적은 하향 추세를 보인다. 반면에 산불 피해 면적과 자연생태 보호지역 증가면적은 상향 추세를 보인다. 생물다양성 증진 제도화 여부는 달성 여부만을 따지기 때문에 유지 현황을 보인다.
- 2020년과 2021년도 실적치 추세를 보면, 나무 식재량은 소폭 증가하여 달성률 추세와 상이하고, 나머지 지표들은 모두 달성률 추세와 일치한다.
- 삼천만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는 목표를 이행 완료하였으므로 새로운 세부사업과 성과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 이행과제가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보장이므로, 대안적인 세부사업 및 성과지표로 서울 생태계 서비스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을 검토할 수 있다.
  - 다른 대안적인 세부사업으로 공원녹지 예산 증가를 들 수 있고, 성과지표로 공원녹지 예산 비율을 제시할 수 있다.
- 안전한 도시 숲 관리 사업의 성과지표가 산불 피해 면적인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어 중요한 성과지표인 점은 인정되나, 각종 사고가 원인인 경우도 많아 적극적인 관리가 쉽지 않은 지표로 판단된다.
  - 대체사업으로 '조림 면적 및 숲 가꾸기 면적 증가'를 들 수 있고 성과지표는 조림 면적 및 숲 가꾸기 면적이 될 수 있다.
  - 다른 대체사업으로 '서울시 단절 녹지 축 복원 사업'을 검토해볼 수 있고, 성과지표는 '소규모 생태 축 복원사업 추진 개소'를 검토해볼 수 있다.
- 자연생태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사업의 성과지표인 자연생태 보호지역 증가면적은 2021년 실적치가 190,040㎡로 목표치 대비 378.6%를 달성했고, 이미 2030년 목표치인 106,600㎡도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목표치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 대체 성과지표로 소규모 생물서식지 조성면적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소규모 생태 경관 보호지역 지정 면적'을 검토해볼 수 있다.
- 생물종다양성을 위한 야생생물 증식 및 복원사업은 2021년의 실적치가 현저히 낮은 문제가 있다. 야생생물 증식 및 복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서울시 보호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야생동물

증식 및 복원 사업을 증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삼지구엽초, 고란초, 산개나리를 비롯한 서울시 보호종 식물도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사업의 성과지표인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면적의 목표치가 매년 100만㎡로 일률적으로 할당되어 있어 불합리해 보인다. 가능하다면 대체 지표로 생태계 조사 시 발견되는 외래종수 및 개체 수를 검토할 수 있다.
- 지속가능성 검토를 통한 법정계획의 생물다양성 증진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가 생물다양성 증진 제도화 여부인데, 이미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고, 증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시 평가 기준에 생물다양성 증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목표가 이행 완료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세부사업과 성과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 대체 사업으로 서울 생물다양성 통합 DB 구축을 검토하고, 성과지표로 서울시 생물다양성 통합 DB 구축 조직 마련 여부 또는 서울시 생물다양성 통합 DB 구축 및 운영 여부를 검토 해볼 수 있다.
  - 다른 대체 사업들로, 서울 생태계 서비스 평가체계 구축 사업 또는 생물다양성 주류화 사업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 2.4 함께 만드는 서울

### 2.4.1 시민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연 번	이행과제	세부사업	성과지표	2020년 실적치/ 목표치	2021년 실적치/ 목표치	2020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21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률 추세
75	서울시민의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노후주거지의 환경개선, 부담 가능한 주택의 확충을 통해 모든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비율 (%)	9.22/ 9.0	9.72/ 9.5	달성 (102.4)	달성 (102.3)	12% ↘
76	수도권 광역체계와 연계하여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	61.4/ 65.7	통계치 미발표/ 66.0%	일부달성 (93.5)	-	67.3%
77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 활성화	도시계획 시민참여단의 사회적 소수자 비율 (%)	10/ 10	10/ 10	달성 (100)	달성 (100)	10% -
78	서울의 역사문화,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자연, 역사, 문화,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며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한다.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미래유산 선정 건수 (건)	24/ 10	23/ 10	달성 (240)	달성 (230)	10건 ↘
79	빈곤층,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시민들에 대한 재난 시 구조체계를 강화하여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조성한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안전취약가구 점검 및 정비 가구 수 (가구)	23,800/ 12,600	24,425/ 12,600	달성 (188.9)	달성 (193.8)	12,600 가구 ↗
80	미세먼지의 농도를 2016년의 70% 수준으로 낮춘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µg/m³)	21/ 22	20/ 21	달성 (104.5)	달성 (104.8)	15µg/m³ ↗
81	공원복지서비스의 소외지역을 최소화하고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공공복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일상에서 만나는 생활정원 확대	생활정원 녹화면적 (km²)	1/ 1	1/ 1	달성 (100)	달성 (100)	6km² -
82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서울 대도시권의 경제·사회·환경적 연계성을 강화한다.	소통·공유 지역 상생공동체 조성	MOU 체결 지자체 수(누계) (개)	69/ 75	69/ 91	일부달성 (92)	일부달성 (75.8)	130개 ↘

- ‘함께 만드는 서울’ 전략의 3대 과제 중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의 과제를 위하여 8개의 세부사업과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연도별 달성 여부를 보면 2020년과 2021년도에 6개 사업이 목표치를 달성하였는데, ‘소통공유지역 상생공동체 조성’ 사업은 92%, 75.8%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은 2020년도에는 93.5%로 일부 달성하였고, 2021년도는 통계치 발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 달성률 추세를 보면 안전 취약 가구 점검 및 정비 가구 수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상향, 도시계획 시민참여의 사회적 소수자 비율과 생활정원 녹화면적은 유지, 공공임대주택 비율, 미래유산 선정 건수 및 MOU 체결 지자체 수는 하향 추세를 보였다.
- 2020년과 2021년의 실적치를 비교하여 보면,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상승하였고, MOU 체결 지자체 수는 유지여서 달성률 추세와 상이하였으나 나머지 지표들은 달성률 추세와 일치하였다.
-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과제는 ‘공공임대 공공지원주택 공급’ 사업으로 2020년 9.0% 2021년 9.5%를 목표로 주거 안정을 도모해 왔는데 9.22% 9.72%로 달성은 하였다. 그러나 주거권 보장은 주택공급으로 직결되므로 지표 목표치를 의욕적으로 설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은 성과지표가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인데,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매년 소폭 상승을 보여왔지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분담률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도시, 교통 특성이나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020년도에는 목표 65.7%에 못 미치는 61.4%를 달성하였다.
  - 지방대중교통계획 등에 의하면 취약지역에 대한 광역철도서비스를 제고한다든지 복합환승 센터를 확대하고 광역간선을 구축하는 등의 사회간접인프라를 확충하는 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지표를 달성하려고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판단이 된다.
-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은 도시계획시민참여단의 사회적 소수자 비율을 성과 지표로 선정하여 2020년도와 2021년도는 목표치 대비 실적을 달성하였다. 시민참여형 미래 2040 서울플랜 수립을 추진하면서 시민사회, 지역주민, 자치구, 시의회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시민홍보,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병행하는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적극적 추진이 기대된다.
  - 2020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성과지표의 소수자 비율을 10%로 정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한 피드백을 기준으로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 이행과제 중 ‘서울의 역사문화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자연·역사·문화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는 과제는 2020년과 2021년 비교 지표를 보면 달성률이 하락하는 추세인데 유산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 스스로가 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계기나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추진 내용이 보다 활성화되고 시민홍보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된다.
  -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미래유산 보존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기관 중심의 유산발굴 관리 체계 구축, 유지 등을 볼 수가 있는 데보다 많은 시민이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나 홍보 계획 등이 보완 및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시 구호체계 강화와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고 안전한 도시 서울을 조성하는 과제는 사각 안전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성과지표는 안전 취약가구를 점검하거나 정비하는 가구 수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른 지표 달성률을 보면 2020년도에는 12,600가구 목표에 23,800가구를 달성하여 188.9%의 달성률을 보였고, 2021년도에는 12,600가구 목표에 24,425가구를 달성하는 등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달성률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시의 안전 취약가구 및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시설 개선과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다만, 2020년도 이후 안전 취약가구 점검 및 정비가구수의 목표를 12,600가구로 한정하여 2030년까지 목표를 세우는 것은 2020년과 2021년의 실적치를 근거로 상향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 쾌적한 환경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인 '미세먼지 농도를 2016년 대비 70%로 낮춘다'는 목표는 '시민이 함께 만드는 먼지 없는 서울'의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19년도에 지자체 처음으로 5등급의 차량을 운행 제한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법제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전예방적인 집중 저감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
  - 국내 단일 지자체의 노력 이외에 국내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동아시아 맑은 공기 네트워크 등의 다자간 협력 및 교류 사업도 성과를 내면서 미세먼지 저감 등의 공동노력을 통한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 시의 추진계획 중 특이할 만한 것은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대한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인데, 미세먼지 안심 구역에 대한 효과에 따라서 타 지자체로의 확산을 통하여 공동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공공녹지 서비스 소외지역을 최소화하고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의 공공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과제는 '일상에서 만나는 생활정원의 확대'라는 사업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2020년 2021년 목표치는 녹화면적 1km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주요 추진 방향은 골목길, 주택가 등 시민 생활 속의 정원녹화로 추진이 되었는데 2030년 6km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매년 녹화면적을 1km씩을 추진해 나가는 계획이고 2020년, 2021년은 목표 달성하였다.
  - 공공건물을 구조물 녹화를 추진한다든지, 생활밀접형 정원을 확대하고 유아 청소년 눈높이 맞춤형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보다 의미있는 정원녹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 수도권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대도시권의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과제는 소통공유의 지역 상생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자체의 MOU 체결 수로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이 지표는 2020년과 2021년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지자체 간의 이해조정 등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 상생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서울과 지역 간의 상생 교류를 위한 전문가 등의 자문회의를 비롯하여 지역 간의 교차 및 통합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연계 채널을 다양화하면서 서로의 이해를 도모하고 시민에게 더욱 체감되는 상생공동체를 조성하는 노력이 서로 필요해 보인다.

## 2.4.2 정의로운 서울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연번	이행과제	세부사업	성과지표	2020년 실적치/ 목표치	2021년 실적치/ 목표치	2020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21년 달성 여부 (달성률)	2030 목표
								달성률 추세
83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강력범죄 발생 건수를 대폭 줄인다.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생활안심 디자인 조성 개소 수 (개소)	1/ 4	3 /4	미달성 (25)	일부달성 (75)	4개소 ↗
			서울5대강력범죄 발생건수 (100명당 건)	0.93/ 1.1	통계치 미발표/ 1.09	달성 (115.5)		1.0건
84	학대, 착취 등 모든 형태의 아동 대상 범죄 발생 건수를 대폭 줄인다.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조사 공무원 확보	56/ 56	91/ 94	달성 (100)	일부달성 (96.8)	100명 ↘
85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 문화,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모든 시정을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한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시정권고 이행률 (%)	87/ 70	68/ 72	달성 (124.3)	일부달성 (94.4)	75% ↘
86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상습적 고액 체납 및 탈세 징수를 대폭 강화한다.	체납징수 강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	22.1/ 17.0	19.5/ 17.2	달성 (130)	달성 (113.4)	19.0% ↘
87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 수수를 근절한다.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점)	8.34/ 7.82	7.79/ 7.87	달성 (106.6)	일부달성 (99)	8.5점 ↘
88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과 제도를 확대한다.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시민·주민감사 등 확대 건수 (건)	16/ 18	18/ 20	일부달성 (88.9)	일부달성 (90)	30건 ↗
89	주민참여행정을 실현하여 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강화한다.	시민숙의예산제	시민숙의예산액 (백만원)	922,500/ 600,000	1,044,800/ 1,000,000	달성 (153.8)	달성 (104.5)	1,000,000 백만원 ↘
90	모든 시민의 정보접근성을 향상하며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와이파이 소외없는 서울 조성	공공와이파이 공급	300/ 250	140/ 300	달성 (120)	미달성 (46.7)	300시설 운영 ↘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정보화교육 이수자 수 (명)	18,000/ 18,000	18,500/ 18,500	달성 (100)	달성 (100)	21,000명 -
91	서울시 각 자치구가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시행	컨설팅 자치구 수 (개)	10/ 10	11/ 12	달성 (100)	일부달성 (91.7)	25개 ↘

○ <정의로운 서울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을 위하여 9개의 이행과제가 설정되었고, 구체적으로 10개의 세부사업과 11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었다.

○ 2021년도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등 3개 성과지표의 달성률은

100% 이상으로 나타났고, 시정 권고 이행률 등 6개 성과지표는 일부 달성, 공공와이파이 공급은 46.7%로 미달성으로 나타났다.

- 2020년과 2021년도 달성률 추세를 보면,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강력범죄 발생 건수 대폭 감소 목표는 생활 안심 디자인 사업으로 상향 추세이고,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과 제도 확대를 위한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지표 역시 상향 추세를 보인다. 정보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은 유지,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시민 인권 구제위원회 운영, 체납 징수 강화, 청렴 의식 향상 및 청렴 문화 확산, 시민숙의 예산제, 와이파이 소외 없는 서울 조성,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시행은 하향 추세이다.
-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한 실적치는 아동학대 예방, 시민숙의 예산제 및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시행은 상승하여 달성률 추세와 역으로 나타났고,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화 교육은 상승하여 유지를 보인 달성률 추세와 상이했고, 생활 안심 디자인 사업 등 6개 사업은 달성률 추세와 일치하였다.
-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강력범죄 발생 건수 대폭 감소의 성과지표는 생활 안심 디자인 조성 개소 수, 서울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이다.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범죄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행정적인 노력으로 달성 가능한 생활 안심 디자인 조성 개소 수가 일부 달성된 것은 아쉽다.
- 학대, 착취 등 모든 형태의 아동 대상 범죄 발생 건수 대폭 감소의 성과지표인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 확보는 2020년은 성과 달성이었지만, 2021년은 일부 달성(96.8%)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 대상 범죄 발생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 확보에 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 수수 근절의 성과지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이다. 2020년은 106.6% 달성이었으나, 2021년은 99%로 일부 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년도 대비 하향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교육 강화 등 노력이 필요하다.
-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과 제도 확대의 성과지표는 시민·주민감사 등 확대 건수이다. 본 성과지표는 달성률이 2020년 88.9%, 2021년 90%로 나타나고 있다. 100% 성과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하여 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 참여 강화의 성과지표는 시민숙의 예산액이다. 2020년은 153.8% 달성, 2021년은 104.5% 달성으로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의 경우 시민숙의 예산의 달성률이 전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졌다. 시민이 정책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숙의 예산액 강화와 더불어, 관련 사업 건수를 증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서울시 각 자치구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도록 지원의 성과지표는 컨설팅 자치구 수이다. 2020년은 100% 달성이었지만 2021년은 91.7%로 일부 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2.4.3 지속가능발전의 선도 도시로서 해외도시와의 교류 협력 강화

연번	이행과제	세부사업	성과지표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30
				실적치/ 목표치	실적치/ 목표치	달성 여부 (달성률)	달성 여부 (달성률)	목표 달성률 추세
92	해외도시와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상호합의에 따른 지식 및 정책의 공유를 강화한다.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강화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 건수 (건)	17/ 17	20/ 20	달성 (100)	달성 (100)	20건 -
93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성과를 개발도상국으로 확산하고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SDGs 지식공유 플랫폼 운영 지원	SDGs 플랫폼을 통한 서울시 사례 수(누적 건)	122/ 126	122/ 131	일부달성 (96.8)	일부달성 (93.1)	176건 ↘
94	해외 도시와 서울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국제회의 참가 및 교류협력 사업 건수 (건)	30/ 30	31/ 31	달성 (100)	달성 (100)	34건 -
95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 서울시·시민사회·기업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운영	위원회 회의 안건 수 (개)	11/ 20	23/ 22	일부달성 (55)	달성 (104.5)	40개 ↗
96	개발도상국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ODA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한다.	ODA를 통한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 진출 사업 추진	해외사업 신규 수주 (건)	4/ 4	4/ 4	달성 (100)	달성 (100)	5건 -
97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남북 협력을 추진하여 서울시민의 안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서울-평양 생활협력 단계적 활성화	생활협력 단계별 추진	1/ 1	1/ 지속확대	달성 (100)	달성 (100)	생활 협력 분야 지속 확대 -

-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 도시로서 해외도시와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하여 6개 이행과제, 6개 세부사업 및 성과지표를 각각 설정하였다.
-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보면, 우수정책 공유 건수 등 4개는 2020년과 2021년 모두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고, SDGs 플랫폼을 통한 서울시 사례 수는 두 해 다 일부 달성에 그쳤으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회의 안건 수는 2020년 일부달성, 2021년에는 104.5%로 달성하였다.
- 달성률 추세를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안건 수는 상향 추세, SDGs 플랫폼을 통한 서울시 사례 수는 하향 추세, 그리고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 건수 등 4개 지표는 유지를 보였다.
- 2020년과 2021년도 실적치 추세를 보면,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 건수와 국제회의 참가 및 교류 협력 사업 건수는 상승하고, SDGs 플랫폼을 통한 서울시 사례 수는 유지로 달성률 추세와 상이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안건 수 등 3개 지표는 달성률 추세와 일치하였다.

- 해외도시와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상호합의에 따른 지식 및 정책의 공유 강화는 2020년, 2021년 모두 목표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선도 도시로서 서울시와 해외도시와 교류 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더 높게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성과를 개발도상국으로 확산하고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이행과제의 성과지표는 SDGs 플랫폼을 통한 서울시 사례 수(누적건)이다. 2020년 96.8%, 2021년 93.1%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글로벌 선진도시로서 서울의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관한 평가와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 해외 도시와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 강화 관련 성과지표는 국제회의 참가 및 교류 협력 사업 건수이다. 2020년, 2021년 모두 1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국제회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향후 필요시 비대면 회의를 병행할 수도 있지만, 대면 회의를 통해 교류 협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 서울시·시민사회·기업 파트너십을 활성화의 성과지표는 위원회 회의 안건 수이다. 2020년은 55% 달성, 2021년은 104.5% 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 도시로서 해외도시와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6개 이행과제 중 유일하게 목표치 달성률이 상향 추세이다.
- 개발도상국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ODA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의 성과지표는 해외사업 신규 수주이다. 2020년과 2021년의 실적치/목표치는 각각 4/4로 1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선진도시 서울의 위상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ODA 사업의 목표 건수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남북협력을 추진하여 서울시민의 안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의 성과지표는 생활협력 단계별 추진이다. 2020년의 실적치/목표치는 1/1, 2021년의 목표치는 생활협력 추진을 지속 확대하는 것이며 실적치는 1건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았다. 서울-평양 생활협력 단계적 활성화라는 세부사업의 특성상, 대북한 관계 및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실적치/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2021년의 경우 목표치를 협력 추진 지속 확대로 설정하였는데, 목표치가 모호하므로 명확한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북, 국제 정세와 무관하게 서울시민의 안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3.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요약 및 향후과제

#### 3.1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요약

##### 〈분야별 달성도 종합결과〉

분야	성과지표	구분	달성	일부달성	미달성	통계치 미집계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사회 분야) 5대 과제, 26개 세부목표(이행과제)	27개	2020년	23	3	1	0
		2021년	19	6	1	1
활력있는 경제정의 도시(경제 분야) 4대 과제, 18개 세부목표(이행과제)	24개	2020년	17	6	0	1
		2021년	17	4	1	2
쾌적한 기후환경 도시(환경 분야) 5대 과제, 30개 세부목표(이행과제)	32개	2020년	26	2	3	1
		2021년	24	3	4	1
함께 만드는 도시(협력(거버넌스) 분야) 3대 과제, 23개 세부목표(이행과제)	25개	2020년	19	5	1	0
		2021년	14	8	1	2

- 2020년도에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한 성과지표는 85개로 78.7%의 달성률을 보였다. 반면 2021년도에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한 성과지표는 74개로 68.5%의 달성률을 보이며, 2020년도 달성률 대비 10.2% 하락하였다.
- 분야별 달성률을 살펴보면, 경제 분야의 경우만 2020년, 2021년 모두 71%의 달성률을 유지하였고, 사회 분야는 2020년 85%의 달성률에서 2021년 70%로 15%포인트 하락, 환경 분야는 2021년 81%의 달성률에서 2021년 75%로 6% 포인트 하락하였고, 협력(거버넌스) 분야는 2020년 76%의 달성률에서 2021년 56%로 20% 포인트 하락을 보였다.

##### 〈분야별 달성률 추세 종합결과〉

분야	성과지표	이행상황 중간점검 분야별 달성률 추세 결과			
		증가	유지	감소	통계치 미집계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사회 분야)	27개	7	8	11	1
활력있는 경제정의 도시(경제 분야)	24개	7	6	9	2
쾌적한 기후환경 도시(환경 분야)	32개	9	11	11	1
함께 만드는 도시(협력(거버넌스) 분야)	25개	5	7	11	2

- 달성률 추세를 살펴보면, 2020년 대비 2021년 달성률이 증가하고 있는 성과지표는 28개(26%), 유지는 32개(30%), 감소는 42개(39%)로 전체의 약 56%가 증가 또는 유지 추세를 보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달성률 추세가 증가로 나타난 성과지표 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 분야는 7개(26%), 경제 분야는 7개(29%), 환경 분야는 9개(28%), 협력(거버넌스) 분야는 5개(20%)로 나타났다.

### 3.1.1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사회 분야)

- 사회 분야: 5대 과제, 26개 이행과제, 27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이행현황: (2020년) 총 27개 성과지표 중 달성 23개, 일부달성 3개, 미달성 1개
- (2021년) 총 27개 성과지표 중 달성 19개, 일부달성 6개, 미달성 1개, 통계치 미집계 1개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 사회 분야 성과지표 달성도〉

과제	이행과제	2020년			2021년			달성률 추세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23	3	1	19	6	1	
1.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을 위한 노력	1 국가 및 서울시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국민 최저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서울시민이 없도록 노력한다.	0			0			/
	2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형 사회보장시스템을 갖추고 이행한다.	0			0			-
	3 서울시민, 특히 취약계층이 금융복지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	0			0			/
	4 서울시 취약계층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줄여나간다.	0			0			\
2.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영양 균형을 위한 도농 유통 구조 개선 및 도시농업 지원	5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균형 있는 먹거리를 보장한다.	0			0			-
	6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을 없애고, 생물학적으로 취약계층인 5세 미만 아동, 청소년기, 임산부, 모유수유 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 상태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0			0			\
	7 지방 농수산물 생산자와의 바람직한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소규모 식량 생산은 물론 빈곤 및 정신건강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농업을 지원한다.	0			0			\
3.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8 산모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지원한다.	0			0			-
	9 5세 미만 사망자 수를 1,000명당 2.5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을 근절한다.	0			0			-
	10 법정감염병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 시 관리와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감염병 치료체계를 구축한다.			0			0	\
	11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감염성 질환을 줄이고, 정신건강과 웰빙 증진정책을 통하여 자살 건수를 대폭 줄인다.		0		-	-	-	
	12 마약, 알코올, 흡연 및 도박 등 모든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강화한다.		0		0			/
	13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건수를 2015년의 절반으로 줄인다.		0		0			\
	14 건강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0			0			-
	15 서울형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비중을 제고한다.	0			0			\
4.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16 유희시설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대책을 강화한다.	0			0			/
	17 취학 전 영·유아들이 양질의 보호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0			0			\
	18 모든 서울시민이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기술훈련, 직업훈련, 대학교육 등을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	0			0			/

과제	이행과제		2020년			2021년			달성률 추세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23	3	1	19	6	1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19	서울시의 청소년과 성인들이 취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취득할 기회를 확대한다.	0			0			-
	20	교육에서의 성별 및 장애인 격차를 해소하고, 이들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강화한다.	0			0			\
			0			0			\
	21	어떠한 서울시민도 글자해독능력, 산술능력, 기본적인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능력 부족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0			0			-
22	서울시민에게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확대한다.	0			0			/	
5.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여성의 역량 강화	23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앤다.	0			0			\
	24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앤다.	0			0			\
	25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호정책, 가정 내 책임 공유 축진을 통하여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0			0			-
	26	여성이 남성과 공평하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보장한다.	0			0			/

- 사회 분야는 5대 과제, 26개 이행과제와 27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총 27개 성과지표 중 2020년은 달성 23개, 일부달성 3개, 미달성 1개로 85%의 달성률을 보였다. 반면, 2021년은 달성 19개, 일부달성 6개, 미달성 1개로 70%의 달성률을 보이며 달성률이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 2020년 달성에서 2021년 일부달성으로 달성도가 하락한 이행과제 및 세부사업은 총 5개로, 취약계층의 재난 노출 및 취약성 감소를 대표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영양 결핍 근절 및 영양 취약계층의 영양상태 관리와 관련된 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공공보건의료 비중 제고를 나타내는 서울형 보건지소 확충사업, 여성과 여아의 차별을 없애는 것과 관련한 성평등 서울 젠더 거버넌스 운영사업, 그리고 여성과 여아 대상 폭력 근절을 나타내는 여성안심특별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 2020년, 2021년 모두 목표치를 미달성한 사업은 감염병 치료체계 구축과 관련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20년, 2021년 모두 코로나19 상황으로 민관합동 훈련을 시행하지 못했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감염병 대응 민관합동 훈련이 재개될 예정이다.
- 반면, 2020년 일부달성에서 2021년 달성으로 개선된 이행과제 및 세부사업은 마약, 알코올 등 중독 예방 및 치료와 연관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2020년 76%의 달성률을 보였으나 2021년에는 목표치를 100% 충족하였다.
- 달성률 추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7개 성과지표는 2020년 대비 2021년 달성률이 증가

하였고, 8개 지표는 유지, 11개는 감소추세를 보였다. 감소추세를 보인 11개 사업 중 2020년, 2021년 두 해 모두 목표치 달성도는 달성 또는 일부달성으로 변함이 없었으나, 달성률 추세는 하락한 사업은 4개이다. 이 사업들의 경우 달성도가 높게 나왔더라도 2030 중장기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달성률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과제별로 살펴보면, 「1. 빈곤 종식을 위한 노력」과 「2. 먹거리 안전과 도농 유통 구조 개선 및 도시농업지원」 과제는 1개 이행과제를 제외하고, 2020년, 2021년 모두 달성을 하여 양호한 달성률을 보인다. 「3.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은 가장 많은 9개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나, 2020년, 2021년 모두 달성 4개로 44%의 낮은 달성률을 보인다. 「4.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제공」 과제는 2020년, 2021년 7개의 지표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5.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및 여성의 역량 강화」 과제는 2020년에는 모두 달성하였으나, 2021년에는 4개 지표 중 2개 지표만 달성하여 50%만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3.1.2 활력 찬 경제정의 도시(경제 분야)

- 경제 분야: 4대 과제, 18개 이행과제, 24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이행현황: (2020년) 총 24개 성과지표 중 달성 17개, 일부달성 6개, 미달성 0개, 통계치 미집계 1개
- (2021년) 총 24개 성과지표 중 달성 17개, 일부달성 4개, 미달성 1개, 통계치 미집계 2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 경제 분야 성과지표 달성도〉

과제	이행과제	2020년			2021년			달성률 추세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17	6	0	17	4	1	
6. 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 에너지 비율 확대 및 에너지 효율 제고	27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한다.		0			0		\
	28 신재생에너지 전력이용률 8%를 달성한다.	0			0			-
	29 건축물 부문과 교통 부문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0		0			/
				0		0		/
30 신재생에너지 기술 분야를 포함한 녹색기술 R&D 지원을 확대하고 7대 녹색산업(신재생 에너지, LED, 그린카, 녹색건축, 녹색서비스, 그린IT, 도시차원순환)을 증진한다.	0	0		0	0		/	
7.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31 타 지역과의 상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GDP, GRDP의 성장을 도모한다.	0			0			\
	32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을 지원하고, 창의·혁신을 통한 산업 다각화로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0			0			\
	33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0			0		/
			0			0		-
34 성별임금격차 개선으로 성평등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0				0	\	

과제	이행과제	2020년			2021년			달성률 추세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17	6	0	17	4	1		
8.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사회기반 시설 확충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장려	35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실업 상태의 청년 비율을 대폭 줄인다.	0			0			-
	36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0				0		\
	37	서울시의 고유문화와 특산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고품격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입안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다.	0				0		\
			-	-	-	-	-	-	
	38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과 행복한 삶을 위한 양질의 친환경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0		-	-	-	
39	미래 기술 기반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0			0			\	
	40	연구개발 인력 및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기반 산업경쟁력을 높인다.	0			0		-	
9.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	41	국가 및 서울시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중위소득 하위 43% 이하의 생활을 하는 서울 시민이 없도록 노력한다.	0			0			-
	42	모든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0			0			/
	43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행을 개선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0			0			\
	44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 등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0			0			-

- 경제 분야는 4대 과제, 18개 이행과제와 24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총 24개 성과 지표 중 2020년은 달성 17개, 일부달성 6개, 미달성 0개로 71%의 달성률을 나타내었다. 2021년 역시 달성은 17개로 71%의 달성률을 보였으나, 일부달성이 4개로 감소하고, 미달성이 1개가 되었다.
- 2020년 대비 2021년 달성도가 한 단계씩 하락한 이행과제 및 세부사업은 총 3개로,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사업과 노동권익센터 운영사업, 그리고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추진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관광 중기발전계획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두 사업인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사업의 달성률은 2020년 57.5%에서 0%로 하락하여 2021년 목표치는 달성 하지 못했으며, 노동권익센터는 100% 달성에서 35.6% 달성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 반면, 2020년 대비 2021년 달성 정도가 일부달성에서 달성으로 개선된 세부사업은 2개로 건축물 부문과 교통 부문 에너지 효율 과제의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대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2020년에도 95% 이상의 높은 달성률을 보였으며, 2021년에는 목표치를 100% 이상 충족하였다.
- 달성률 추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7개 성과지표는 2020년 대비 2021년 달성률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6개 지표는 유지, 9개는 달성률 감소추세를 보였다. 감소추세를 보인 9개

사업 중 2020년, 2021년 두 해 모두 목표치 달성도는 달성 또는 일부달성으로 변함이 없었으나, 달성률 추세는 하락한 사업은 6개이다. 이 중 상생상회 조성·운영 사업은 2020년, 2021년 두 해 모두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했으나, 추세를 보면 2020년 달성률 663%에서 2021년 174%로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울형 신성장 기업 육성 사업 또한 2020년 171%에서 2021년 117%로 달성률이 하락하여 달성률 추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에너지 기본권 보장,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및 에너지 효율 제고」 과제는 총 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020년 달성 4개와 일부달성 3개에서 2021년은 달성 6개, 일부달성 1개로 달성률이 증가하였다.
- 「7.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과제는 총 9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지역과의 상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GDP, GRDP 성장 도모 등 5개 이행과제는 2020년, 2021년 모두 달성하였으나, 성별 임금 격차 개선 등 3개 이행과제는 2021년에 달성도가 하락하였다.
- 「8.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사회기반 시설 확충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장려」 과제는 경제 분야 중 '9.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 과제 다음으로 높은 성과지표 달성도를 보인다. 양질의 친환경 사회기반 시설 확충과 관련된 1개의 성과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성과지표는 2020년, 2021년 모두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9.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력」 과제는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증진 및 확대하는 등의 4개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2021년 모두 달성률 100%를 보였다.

### 3.1.3 쾌적한 기후환경 도시(환경 분야)

- 환경 분야: 5대 과제, 30개 이행과제, 32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이행현황: (2020년) 총 32개 성과지표 중 달성 26개, 일부달성 2개, 미달성 3개, 통계치 미집계 1개
- (2021년) 총 32개 성과지표 중 달성 24개, 일부달성 3개, 미달성 4개, 통계치 미집계 1개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 환경 분야 성과지표 달성도〉

과제	이행과제	2020년			2021년			달성률 추세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26	2	3	24	3	4		
10.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 도시 조성	45	서울시민 누구나 아리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고 수질검사항목을 강화한다.	0			0			-
	46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오염총량을 관리하며 방류수질을 개선하고 노후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등으로 한강수계 수질을 개선한다.	0			0			-

과제	이행과제	2020년			2021년			달성률 추세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26	2	3	24	3	4		
	47	빗물관리시설을 확충하고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0			0			-
	48	한강수계 유역의 수질, 수량, 수생태계를 통합 관리한다.	0			0			-
	49	한강 숲을 조성하고 천변습지와 자연 호안을 조성하는 등으로 한강 수계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0	0		0			/
	50	물 관리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한다.	0			0			-
1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생활화 지원	51	환경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0			0			-
	52	천연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	-	-	-	-	-	
	53	서울시민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인다.	0			0			-
	54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고 유해폐기물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0			0			\
	55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 발생을 대폭 줄인다.			0			0	/
	56	서울지역 내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하도록 권고·지원한다.	0					0	\
	57	시민의 친환경제품 소비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친환경제품 구매 등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시행을 확대한다.	0				0		\
	58	모든 시민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양식을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0			0			/
	59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소비와 생산을 부추기는 조세 및 보조금 등 제도를 점검한 후 이를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0			0			/
12. 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조성	60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복구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0			0			-
	61	서울시 정책, 전략, 계획에 기후변화 대책을 통합하여 추진한다.	0			0			\
	62	기후변화교육 대상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치구 협력 및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 역량을 강화한다.	0		0			0	\
	63	온실가스를 2005년의 60% 수준으로 감축한다.		0			0		/
	64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사업을 개선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0			0			\
	65	국제기구의 기후변화 메커니즘에 참여하고 파트너십을 이루어 기후변화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0	0			/
13.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해양 생태계 보전	66	한강 수계의 폐기물과 녹조 발생 등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 현저히 줄인다.	0			0			-
	67	한강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여 서해를 비롯한 해양생태계의 회복력을 증진한다.	0			0			\
	68	한강이 해양생태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 및 인천시와 협력한다.	0			0			/
14. 도시 내 자연 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69	서울의 숲, 산, 습지, 하천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한다.	0			0			\
	70	산림 내 훼손지에 자생수종을 식재하고 산물 예방을 강화하여 수목을 보호하는 등 서울의 산과 숲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0			0			/
	71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철새보	0			0			/

과제	이행과제	2020년			2021년			달성률 추세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26	2	3	24	3	4	
위한 생물 다양성 증진		호구역 등 자연생태보호지역 면적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72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생물종 복원 및 서식처 확충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한다.						↘
	73	외래종 유입 및 무단방사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계 교란종 확산의 원인을 제어한다.						↘
	74	서울시 계획과 개발 과정에 생물서식공간 및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통합한다.						-

- 환경 분야는 4개 분야 중 가장 많은 수인 5대 과제, 30개 이행과제와 32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총 32개 성과지표 중 2020년은 달성 26개, 일부달성 2개, 미달성 3개로 81%의 달성률을 나타내었다. 2021년의 경우에는 달성 24개, 일부달성 3개, 미달성 4개로 75%의 달성률을 보였다.
- 2020년 대비 2021년 달성도가 달성에서 일부달성 또는 미달성으로 하락한 이행과제 및 세부사업은 총 3개로, 서울 SDGs 2030의 민간 실천 촉진 사업과 기후변화 교육-찾아가는 에너지 놀이터 사업, 그리고 생물 종 다양성을 위한 야생생물 증식 및 복원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3개의 사업 모두 2020년 100% 목표치 달성에서 2021년 50% 이하의 달성도를 보여 미달성으로 분류되었다.
- 2020년, 2021년 모두 목표치를 미달성한 사업은 쓰레기 발생량 저감과 관련된 생활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로 자원순환 도시 구축사업과 기후변화 대응 인식 제고 및 지역 역량 강화와 관련된 에너지 자립마을 2.0 사업이다. 이 중 생활폐기물 감축률은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년에는 쓰레기 발생량을 감축하는 것과 반대로 오히려 증가하여 -22.5%의 달성률을 나타냈다. 두 해 모두 목표치를 미달성한 사업은 2030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면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 반면, 2020년 대비 2021년 달성 정도가 개선된 세부사업은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추진 사업 1개이다. 2개년 다 100%에 가까운 우수한 달성률을 충족하였다.
- 달성률 추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0년 대비 2021년 달성률 증가 추세를 보인 성과지표는 9개이며, 11개 지표는 유지, 11개는 달성률 감소추세를 보였다. 감소추세를 보인 11개 사업 중 2020년, 2021년 두 해 모두 달성 또는 일부달성으로 달성도 결과는 변함이 없었으나, 달성률 추세는 하락한 사업은 6개이다. 이 중 서울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강화 사업은 2020년 140% 달성에서 2021년 120%로 달성률이 하락하는 추세이다. 기후환경 분야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평가 사업 또한 목표치를 두 해 모두 100% 초과 달성하였으나 달성률 추세를 살펴보면 2020년 500%에서 2021년

353%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제별로 살펴보면, 「10.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 도시 조성」 과제는 총 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2020년 한강 숲 조성 관련 성과지표 1개가 일부달성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6개 지표는 2020년, 2021년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여 매우 높은 달성도를 나타냈다.
- 「1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의 생활화 지원」 과제는 총 9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9개 이행과제 중 미집계 1개 및 미달성으로 나타난 2개 이행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이행과제는 모두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 권고 및 지원 세부사업은 2020년에는 목표치를 모두 달성하였으나, 2021년에는 40% 이하의 달성도를 보였다. 또한 쓰레기 발생을 대폭 줄이는 이행과제는 2020년, 2021년 모두 목표치를 20% 이하로 달성하여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12. 기후변화 대응 모범도시 조성」 과제는 7개 지표 가운데 3개 지표만 2020년, 2021년 모두 100%의 달성률을 나타냈다. 기후변화 대응 인식 제고 및 지역 역량 강화 이행과제와 관련된 2개 지표 중 에너지 자립마을은 2개년 모두 35% 이하의 달성률로 목표치를 미달성하였다. 찾아가는 에너지 놀이터 사업은 2020년에는 100% 달성하였으나, 2021년에는 0%의 달성률을 보였다.
- 「13.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해양생태계 보전」 과제와 「14. 도시 내 자연 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 과제는 2020년, 2021년 모두 우수한 목표치 달성도를 보였다. 생물다양성 증진 관련 이행과제의 2021년 지표 달성도가 일부달성인 것을 제외하면 모두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다.

### 3.1.4 함께 만드는 서울(협력 거버넌스 분야)

- 협력(거버넌스) 분야: 3대 과제, 23개 이행과제, 25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이행현황: (2020년) 총 25개 성과지표 중 달성 19개, 일부달성 5개, 미달성 1개, 통계치 미집계 0개
- (2021년) 총 25개 성과지표 중 달성 14개, 일부달성 8개, 미달성 1개, 통계치 미집계 2개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 협력(거버넌스) 분야 성과지표 달성도〉

과제	이행과제	2020년			2021년			달성률 추세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19	5	1	14	8	1	
15.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이고	75	0			0			\
	76		0		-	-	-	

과제	이행과제	2020년			2021년			달성률 추세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달성	일부 달성	미달성		
		19	5	1	14	8	1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77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0			0			-
	78	서울의 역사문화,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자연, 역사, 문화,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며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한다.	0			0			\
	79	빈곤층,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시민들에 대한 재난 시 구호체계를 강화하여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조성한다.	0			0			/
	80	미세먼지의 농도를 2016년의 70% 수준으로 낮춘다.	0			0			/
	81	공원녹지서비스의 소외지역을 최소화하고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공공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0			0			-
	82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서울 대도시권의 경제·사회·환경적 연계성을 강화한다.		0			0		\
16. 정의로운 서울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83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강력범죄 발생 건수를 대폭 줄인다.	0		0		0		/
	84	학대, 착취 등 모든 형태의 아동 대상 범죄 발생 건수를 대폭 줄인다.	0				0		\
	85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 문화,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모든 시정을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한다.	0				0		\
	86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상습적 고액 체납 및 탈세 징수를 대폭 강화한다.	0			0			\
	87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근절한다.	0				0		\
	88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과 제도를 확대한다.		0			0		/
	89	주민참여행정을 실현하여 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강화한다.	0			0			\
	90	모든 시민의 정보접근성을 향상하며 정보취약 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한다.	0					0	\
91	서울시 각 자치구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0				0		\	
17.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 도시로서 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	92	해외도시와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상호합의에 따른 지식 및 정책의 공유를 강화한다.	0			0			-
	93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성과를 개발도상국으로 확산하고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0			0		\
	94	해외 도시와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리더십을 강화한다.	0			0			-
	95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 서울시·시민사회·기업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0		0			/
	96	개발도상국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ODA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한다.	0			0			-
97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남북협력을 추진하여 서울시민의 안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0			0			-	

- 협력(거버넌스) 분야는 3대 과제, 23개 세부목표와 25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총 25개 성과지표 중 2020년은 달성 19개, 일부달성 5개, 미달성 1개로 76%의 달성률을 보였다. 반면, 2021년은 달성 14개, 일부달성 8개, 미달성 1개로 56%로 달성률이 하락하였다.
- 2020년 대비 2021년 달성도가 달성에서 일부달성 또는 미달성으로 하락한 이행과제 및 세부사업은 총 5개로,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사업, 청렴 의식 향상 및 청렴 문화 확산 사업, 와이파이 소외 없는 서울 조성 사업, 그리고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시행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4개 사업은 2020년은 100% 이상 달성하였고, 2021년에도 100%에 근접한 우수한 달성도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와이파이 소외 없는 서울 조성 사업의 경우, 2020년 120% 달성도에서 2021년 50% 미만의 달성도를 보이며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다.
- 반면, 2020년 대비 2021년 달성 정도가 개선된 세부사업은 2개로 생활 안심(범죄예방) 디자인 사업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사업이다. 생활 안심 디자인 사업은 2020년 25%의 달성률에서 2021년 75%의 달성률을 기록하며 목표치 달성도가 3배로 개선되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은 2020년 55%의 달성률에서 2021년 100% 이상으로 달성률이 증가하였다.
- 달성률 추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5개 성과지표는 2020년 대비 2021년 달성률 증가 추세를 나타냈고, 7개 지표는 유지되는 추세였으며, 11개는 달성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감소추세를 보인 11개 사업 중 2020년, 2021년 두 해 모두 목표치 달성도는 달성 또는 일부 달성이었으나, 달성률 추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업은 4개이다. 소통·공유의 지역 상생공동체 조성 사업은 2020년도에는 목표치를 92% 달성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76%로 달성률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시민 속의 예산제 사업의 경우도 2020년, 2021년 모두 100% 이상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달성 추세를 보면 2020년 154%에서 2021년 105%로 50% 정도 달성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 과제별로 살펴보면, 「15.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과제는 총 8개 이행과제 및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2개 이행과제를 제외한 6개 이행과제는 2020년, 2021년 모두 100%의 우수한 달성률을 나타내었다. 서울대도시권의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성 강화 이행과제는 2개년 모두 일부달성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광역체계와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관련 사업은 2020년은 일부달성했으며, 2021년은 통계치 미집계되었다.
- 「16. 정의로운 서울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과제는 총 9개 이행과제, 11개

성과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2020년에는 9개의 지표가 목표치를 100% 충족하였으나, 2021년에는 3개의 지표만이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이 중 2020년, 2021년 모두 목표치를 100% 달성한 세부사업은 3개였으며, 나머지 6개의 경우 일부 달성 또는 미달성이 발생하였다.

- 「17.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선도 도시로서 해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 강화」 과제는 총 6개의 이행과제 및 성과지표를 담고 있다. 6개 중 4개 사업은 2020년, 2021년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 3.2 향후 과제

서울시는 이행과제, 세부사업 및 성과지표를 선정할 때 다음의 두 가지 사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목표 분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서울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목표로 해당 목표와 지표를 통하여 서울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할 사업을 점검하는 데 일차적인 기능이 있다. 현재의 지표 체계는 대부분 서울시 행정에서 이행할 수 있으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과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서울시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부서별로 뚜렷한 목표를 지향하며 사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점검하기에는 유용하나, 서울시 전체가 공유하는 지표로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시 전체의 구성원이 공유 가능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행정에서 매년 이행하고 추진해야 할 사업과 지표를 분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서울연구원에서 수립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에 관한 보고서를 참고하되, 가급적이면 증감이 파악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할 것을 권한다. 그 이유는 지속성을 가진 지표를 발굴하기 위함이며, 목표 접근성을 파악할 수 있어서 평가에 유용하다.
- 둘째로, 서울시의 위상에 맞는 책무 수준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을 파악하여 세부사업과 성과지표, 목표치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 예를 들면, 서울시는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며, 타 도시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공급받아 생활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또한 타 지자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원칙인 형평성과 책임을 고려한다면, 서울시 자체의 에너지자립률과 1인당 폐기물 발생량과 같은 지표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세부사업들이 발굴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 위기를 살아가야 하는 시민 중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능동적인 지원과 개발도상국의 기후 적응을 위한 협력 등 서울시의 위상에 맞는 목표설정과 이행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2장과 3장 1절의 평가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문제점과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 수정·보완이 필요하거나 새로이 추진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분야별로 정리한다.

- (부적절한 성과지표) 이행과제나 세부사업에 적절하지 않은 성과지표는 수정한다. 설정된 세부사업 및 성과지표가 이행과제 내용 및 중요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재설정하거나 추가적인 내용을 보완한다.

- (소극적 목표치 및 기달성 목표) 성과지표는 적절하나 2030년 목표치를 기달성하였거나 목표가 이행과제에 비해 미약할 경우 목표를 상향시킨다. 성과지표와 목표설정이 적절하고 목표를 기달성한 경우에도 이행과제 범위 내에서 새로운 세부사업을 발굴하여 제시한다.
- (비현실적 목표치) 실적치와 2030년도 목표치의 괴리가 너무 큰 비현실적인 목표치는 재조정한다.
- (중복지표) 이행과제는 다르지만, 세부사업 및 성과지표가 중복되는 경우 세부사업과 성과지표를 검토한 후 재조정한다.

### 3.2.1 함께 누리는 행복한 도시(사회 분야)

사회 분야에서 기본 방향별 수정·보완할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부적절한 성과지표)

- 코로나19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처럼 신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치료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따라서 전염병과 관련된 10번 이행과제의 경우, 세부사업인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의 성과지표인 감염병 대응 민관 합동 훈련 외에도 다양한 성과지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민관합동 훈련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지표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 24번 이행과제 ‘여성과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앤다’의 세부 사업으로 ‘여성안심특별시 서울’로 설정되어 있으며 성과지표는 안심이 앱 다운로드 건수이다. 하지만 성과지표가 이행과제를 충분히 반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 수와 같은 직접적이고 객관적 지표와 감소추세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 ○ (소극적 목표치 및 기달성 목표)

- 1번 성과지표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은 2030목표치가 2.75%로 소극적으로 설정되어 2020년과 2021년에 이미 목표를 달성하여 목표치 상향이나 지표의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 2022년까지 시행되는 ‘서울시민 복지 기준 2.0’ 계획이 변경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고, 급격한 지표변경이 어려우면, 빈곤층에 대한 생계급여(중위소득 30%) 기준이나 주거급여(45%)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3번 금융복지 상담 건수 역시 2021년에 2030년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금융복지 상담 건수가 취약계층의 실질적 금융복지 혜택 수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표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체 지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 14번 통합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16번 환경보건·독성관리센터 설치·운영의 경우,

2030년 중장기 목표치를 이미 달성하였다. 이 경우, 목표를 상향하는 것으로 재조정할 것인지 또는 남은 기간은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16번의 경우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재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6번 여성 관리자양성 비율은 2021년도에 2030년도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이행과제에 더 적합한 성과지표는 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로 재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비현실적 목표치)

- 4번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는 2030목표치와 2021년 실적치 차이가 매우 크다. 긴급복지라는 특성상 재난이나 사회 불안 요소의 발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목표치 7만 가구는 다소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줄인다는 목표에 적합하도록 방향성만 제시하거나 연간 2% 증가 수준에 맞추는 것을 권한다.

○ (중복지표)

- 이행과제 8번인 산모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지원사업과 9번 영유아(5세 미만) 사망자 수를 낮추는 과제에 대한 세부사업과 성과지표가 동일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어, 차별화된 세부사업 및 성과지표 발굴에 대한 요구가 있다. 9번의 경우 성과지표로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및 신생아 사망률(1,000명당 사망 수)을 설정하고, 과거 10년간 1,000명당 0.5명 이하에서 약 0.25명 영유아 사망률이 개선된 점을 고려하였을 때 2030년 목표치를 0.35명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기사망의 원인을 찾아내고 예방한다는 의미에서 예방에 관한 건강 비용 지원과 같은 정책 내용을 지표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 3.2.2 활력찬 경제정의 도시(경제 분야)

경제 분야에서 기본 방향별 수정·보완할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부적절한 성과지표)

- 29번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68.2%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하여, 그린리모델링 지표는 개소가 아니라 비율 또는 지수로 성과 점검할 필요가 있다.
- 28번, 31번, 32번, 37번, 39번 등의 이행과제들처럼 기설정된 성과지표가 부적절하지는 않지만, 과제 특성상 유사한 대체 성과지표를 추가하는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이 있다.<sup>17)</sup>

17)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제2장의 해당 과제 관련 내용을 참조.

○ (소극적 목표치 및 기달성 목표)

- 33번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은 2020년 100개 100%, 2021년 50개 100%, 2030년 목표치 50개로 2021년에 이미 달성하였으며,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50개 목표치는 매우 미약하므로 대폭 목표 상향이 필요하다.
- 35번 청년 뉴딜일자리 추진은 2020년 4,600명, 2021년 4,200명으로 각각 100% 달성하였고, 2030년에도 4,200명으로 2030년 목표를 기달성하였으므로 목표 상향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성과지표를 뉴딜일자리 참여자 수에서 이행과제에 보다 충실한 지표인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실업 상태의 청년 비율 축소를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40번 서울형 R&D 지원사업, AI 인재양성 역시 2030년 목표치를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목표 상향이 필요하다.
- 44번의 경우 서울형 생활임금제 정착 및 확산 사업은 공공분야 생활임금 적용 대상 기관은 100% 달성하였으나 민간까지 확산하는 사업인 만큼 새로운 사업(민간), 새로운 성과지표(민간)를 설정하고 추진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 경우 향후 평가보고서 작성 시 이행과제 하에 세부사업(성과지표) 공공분야 달성도를 2020년 100%, 2021년 100%로 표기하고, 민간분야 달성도 또한 2022년, 2023년, 2030년 목표치 달성도를 백분율(%) 방식으로 표시함으로써 범위가 큰 이행과제는 다수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중복지표)

- 32번 서울형 신성장 기업 육성 사업은 39번 이행과제의 세부사업 및 성과지표와 동일하여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

### 3.2.3 쾌적한 기후환경 도시(환경 분야)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분야에서 기본 방향별 수정·보완할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부적절한 성과지표)

- 54번 환경보건 알권리 강화 사업의 성과지표는 환경보건위원회 개최 여부로 설정되었다. 이는 협력 거버넌스 분야의 관점에서 보면 위원회 개최 여부를 소통과 참여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보기는 어렵다. 유해 화학 물질 사용량 감축 또는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소통 관련 지표로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
- 62번 기후변화 인식 제고와 지역 역량 강화의 세부사업과 지표로 각각 '기후변화 교육-찾아가는 에너지 놀이터'와 해당 교육 이수자를 설정하였다. 서울시 전체에서 기후변화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은 서울시 행정뿐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의 생태 전환 교육 추진과 같이

서울시의 공공기관에서 추진되는 사업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 65번 국제기후협력 강화의 지표로 기후 관련 국제 포럼 개최 건수로 설정되어 있으나 도시 간 기후 협력을 가늠하는 지표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국제협력 거버넌스의 목표에도 부합하도록 질적, 양적 수준 조절이 필요하다.
-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해양생태계 보전〉 과제(이행과제 66번~68번)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14번 목표(해양생태계 보전)의 취지를 살린 과제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과제의 달성을 위한 세부사업과 성과지표들이 해양생태계 보전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재수립 시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 72번 생물종다양성을 위한 야생생물 증식 및 복원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성과지표로 야생생물 증식 수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추가로 서울시 보호종 식물도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을 권한다.

○ (소극적 목표치 및 기달성 목표)

-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의 이행과제 중 69번, 71번, 73번, 74번은 세부사업과 성과지표의 목표가 이행 완료되어 목표치를 상향하거나 세부사업과 성과지표 재설정이 필요하다.<sup>18)</sup> 이를 위해서 제2차 서울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2022-2030)을 참고해서 반영할 것을 권한다.

○ (중복지표)

-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도시 조성〉 과제의 48번 ‘한강수계 유역의 수질, 수량, 수생태계를 통합 관리한다’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해양생태계 보전〉 과제의 이행과제들과 일부 중복되는 의미가 있어 해당 이행과제를 비롯하여 세부사업과 성과지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63번 세부사업인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체제 강화와 성과지표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제 분야 30번과 환경 분야 63에 중복되어 포함되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 3.2.4 함께 만드는 도시(협력 거버넌스 분야)

- 협력 거버넌스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업 수행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이행과제, 세부사업 및 성과지표

18) 대체 세부사업과 성과지표에 대한 제안은 제2장의 해당 이행과제 설명에 포함되어 있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

- 서울시의 정책, 행정계획, 사업 등의 수립 또는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시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도 시행과정에서 이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비율이 낮거나 통로가 부족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지표를 수정 보완하여 진정한 의미의 협력과 협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협력 거버넌스 분야에서 기본 방향 관련 수정·보완할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부적절한 성과지표)

- 이행과제 78번 서울의 역사문화, 자연유산 보호 및 자연, 역사, 문화, 미래 등 문화 다양성 증진의 세부 사업은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성과지표는 미래유산 선정 건수로 설정되어 있다. 세부사업과 성과지표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세부 사업이 ‘기 선정된 미래유산들이 어떻게 잘 보존 및 활용되고 있는가?’인데, 미래유산 선정 건수는 적절한 성과지표로 보이지 않는다.
- 이행과제 84번인 학대, 착취 등 모든 형태의 아동 대상 범죄 발생 건수 대폭 감소의 경우, 선정된 세부사업은 아동학대 예방이며, 성과지표는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 확보다. 단순히 아동학대 조사의 공무원 확보 수가 아동학대 예방 조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

○ (소극적 목표치 및 기달성 목표)

- 이행과제 79번 사각 안전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세부사업은 2020년과 2021년에 이미 2030목표치를 높은 비율로 초과 달성하여 목표치 상향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 이행과제 96번 개발도상국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ODA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의 성과 지표인 ODA를 통한 해외사업 신규 수주(건) 경우, 2020년과 2021년의 목표 달성 하였으나 서울의 위상을 감안하여 ODA 사업의 목표 건수를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 4. 결어

### 시정 운영의 핵심 원칙 지속가능발전

본 보고서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을 점검하면서 서울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보고서이다.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사회, 환경, 경제, 협력이라는 4대 전략 분야에 걸쳐 17개의 목표와 97개 이행과제로 구체화 되어 있으며, 제1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의 차이점은 기존의 10대 체계에서 유엔의 17개 SDGs 목표 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변경하여 작성한 부분이다. 그러나 17개 목표 분야의 이행과제는 기존에 서울시에서 추진해온 정책이나 도시계획 내용 중 관련성이 높은 정책을 반영함으로써 무리한 정책 변경이나 정책 집행상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과제와 지표 선정 과정에서 정책 조율과 협의가 필요했던 이유는 서울시가 지속가능성을 전체 도시계획의 최상의 목적으로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세계적인 도시 서울의 위상이 경제성장과 문화적 역동성에 기인했다는 인식이 만연하다 보니,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공무원 전반과 시민들에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의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이유, 서울의 출생률이 지방보다 낮은 이유, 서울 내에서도 지역 간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지속가능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질 좋은 일자리, 소외되지 않는 공교육,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안전한 삶,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 등이 보장되어야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서울과 같은 메가 도시는 동시대의 인류애를 나누고,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그 본분을 다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는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운영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서울의 공간계획인 도시계획, 생활권계획, 도시재생계획, 경관 계획, 교통계획이 탄소를 저감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직주근접이나 녹색교통,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를 설계하고, 녹색 생태 축을 중심으로 현세대의 건강과 미래세대를 위한 녹색공간을 확보해야 하듯, 먹거리기본계획이나 자원순환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문화시민도시계획, 공유도시계획 등도 지속가능성을 비전과 원칙으로 다루어야 한다. 서울시의 각종 계획이 지속가능발전을 핵심 원칙으로 만들어질 때 비로소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타 계획들의 총합으로서 이행가능할 것이다.

## 지속가능성 복합지표와 핵심이슈

본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이행계획에 제시된 목표 달성률과 실적치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지만, 실제로 이번 점검의 중요한 의미는 2030목표 도달 가능성에 있다. 여러 지표 중에서 2030목표 달성이 어려운 지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생활폐기물 감축량, 자살률, 교통사고 사망률, 성차별적인 임금 격차나 각종 성폭력 등이다. 이들은 세부사업을 통해서 일부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삶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이나 수송체계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직주근접이나 근거리 생활 인프라, 재택근무 등 도시와 일자리와 같은 다른 분야 목표들과의 연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생활폐기물 감축목표 역시 마찬가지다. 1회용품 제한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 주문배달 방식 변화, 제로웨이스트 숍,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되살림가게, 업사이클링 등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하다.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쓰기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자살률이나 서울의 고독사 역시 일자리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 갈등에서 관용과 환대로, 배제에서 포용으로 나아가는 지속가능발전의 원칙들이 마을과 공동체 단위에서부터 실현되고, 목표와 목표 사이에서 연결되고 발현되어야 한다.

차기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한마디 덧붙인다면,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되고 평가 및 점검을 하기 전에 매년 중심과제 혹은 핵심 이슈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시하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제4기 위원회는 처음으로 코로나19라는 사태에 직면하여 보건에 초점을 맞춰서 서울과 같은 거대도시와 전염병 이슈를 다뤄야 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분석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교통체계 혹은 생활폐기물, 도시농업, 성평등, 기후변화 대응 등 복합적인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이슈 두세 가지를 선정하는데 차기 위원들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1~2년간 관련 부서와 함께 집중분석을 한다면 더 의미 있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분석이 누적된다면 2030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보다 지속가능한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자치구와 지속가능발전교육

서울의 지속가능발전계획은 시정계획이지만 자치구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주요 활동에는 자치구에 대한 자문과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자치구 중에는 도봉구나 서대문구처럼 지속가능발전에 적극적인 자치구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은 담당자가 없거나 소극적인 자치구들도 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에 지속위가 전문성을 발휘하여 협력한다면 더 많은 자치구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구가 아니더라도 도시재생과 관련된 중간조직이나 마을만들기 활동가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도 있고, 자치구의 평생교육기관이 이러한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시민대학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나 생태전환교육, 환경교육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환경보전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가 미래와 녹색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어서 더 많은 시민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해 배울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본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크게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으로 나뉜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9년부터 생태 전환교육을 구상하고, 서울시와 함께 생태전환교육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단순히 숲 체험이나 생태교육, 환경교육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구 한계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전환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자치구와 시민들에게까지 확장하여야만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과제들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더라도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계획이 2030목표를 향해 일관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의 협력




전 세계적으로 2050 탄소중립이 화두이다. 기후변화협약 정부 간 패널(IPCC)은 <1.5도씨 특별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지구 기온 상승한계를 2℃가 아닌 1.5℃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미 전 세계의 1,490여 개 지방정부가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였고, 서울을 비롯한 116개 도시가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으로서 2020까지 탄소중립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기준 35% 탄소 저감 목표를 제시하게 되었다. 2021년 글래스고에서 우리 정부는 40% 감축목표를 제시하였으므로 이전보다 강력한 목표 달성이 요구될 것이다.

서울시는 2010년 '서울의 약속'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것을 선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2015년 이후 감소 폭이 둔화되고 일부 상승 추세를 보인 바 있다. 서울시는 <기후 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4,940만톤) 대비 25%, 2030년까지 40% 감축목표를 정한 바 있지만, 2021년 배출량은 약4,530만톤으로 8.3% 감소 폭에 그치고 있다.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0% 감축 목표(2,960만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을 동원하고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적응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탄소중립 계획의 실행 수단으로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미 기후변화협약 정부간패널(IPCC) 6차 보고서는 SDGs를 정책권고 사항으로써 반영하였다.





서울시에서는 협치와 소통을 위해 다양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탄소중립 외에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가 존재하는데 부서 칸막이를 넘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차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는 관련 부서 및 여타 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문을 더 열어둔다면 지속가능발전이 다른 계획에 반영되거나 정책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문제점을 개선하고 차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시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 별첨 1. 서울시 지속가능성 2030목표 달성가능성<sup>19)</sup>




서울 SDGs	이행과제	세부사업	성과지표	2030목표 진행수준
 <p>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p>	국가 및 서울시의 사회보장 제도를 통하여, 국민 최저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서울시민이 없도록 노력한다.	서울시민 복지기준 2.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율(%)	●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형 사회보장 시스템을 갖추고 이행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지원(명)	●
	서울시민, 특히 취약계층이 금융복지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운영	금융복지 상담간수(건)	●
	서울시 취약계층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줄여나간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가구)	●
 <p>2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p>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균형 있는 먹거리를 보장한다.	서울 먹거리전략 2030 추진	먹거리전략 2030 추진	●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을 없애고, 생물학적으로 취약계층인 5세 미만 아동, 청소년기, 임신부, 모유수유 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태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월평균 관리 인원(명)	●
	지방 농수산물 생산자와의 바람직한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소규모 식량 생산은 물론 빈곤 및 정신건강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농업을 지원한다.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운영	도시텃밭 조성면적(ha)	●
 <p>3 건강하고 행복한 삶</p>	산모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 (출생아 대비)(%)	●
	5세 미만 사망자 수를 1,000명당 2.5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을 근절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율 (출생아 대비)(%)	●
	법정감염병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 시 관리와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감염병 치료체계를 구축한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감염병 대응 민관합동 훈련(회)	●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감염성 질환을 줄이고, 정신건강과 웰빙증진정책을 통하여 자살 건수를 대폭 줄인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2단계 자살예방 추진	자살률(10만명 당 자살 사망자 수) (명)	N/A
	마약, 알코올, 흡연 및 도박 등 모든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강화한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중독자 재활서비스 건수 (건)	●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건수를 2015년의 절반으로 줄인다.	교통사고 사망자 획기적 감축을 위한 교통안전 강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	●
	건강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가 건강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방문건강 등록관리 대상자 수(명)	●
	서울형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위해 공공 보건의료의 비중을 제고한다	서울형 보건지소 확충	서울형 보건지소수 (개소 수)	●
	유해물질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건강 대책을 강화한다.	환경보건·독성 관리센터 설치·운영	환경보건·독성 관리센터 설치·운영	●




19) 신호등 표시 원칙 초록신호등 - 2030목표 대비 진행수준은 2020-2021년 성장률이 2020-2030년 사이의 표준연간성장률(2030목표/2020목표)<sup>1/10-1</sup>이상으로 동일방향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초록신호등으로 표시함. 단 2020-2021성장률이 표준연간성장률보다 높더라도 2020실적치가 당해 목표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현 성장률로는 2030목표 달성가능성이 어려울 수 있음. 노란신호등 - 성장률이 표준연간성장률과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되더라도 정도가 미약할 경우 노란신호등(2021성장률이 표준연간성장률의 50%이상)과 주황신호등(2021 성장률이 표준연간성장률의 50%미만)으로 표시. 빨간신호등 - 2020-2021 성장률이 표준연간성장률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빨간신호등으로 표시함. 단, 역행방향이더라도 이미 2030목표를 달성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용이한 지표의 경우 달성되었음을 반영하여 초록 신호등으로 표시함. 데이터가 없거나 일부만 제공되어 판단이 어려운 경우 N/A (Not Available)로 표기.

서울 SDGs	이행과제	세부사업	성과지표	2030목표 진행수준
<b>4</b>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취학 전 영유아들이 양질의 보호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
	모든 서울시민이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기술훈련, 직업훈련, 대학교육 등을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	서울시민대학 운영	서울시민대학 참여 학습자 수 (명)	●
	서울시의 청소년과 성인들이 취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취득할 기회를 확대한다.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기술교육원 교육 수수료율(%)	●
	교육에서의 성별 및 장애인 격차를 해소하고, 이들의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강화한다.	市 여성능력개발원	여성인력개발기관 직업 훈련교육 참여자 수(명)	●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지원 시설 수(개소)	●
	어떠한 서울시민도 글자 해독능력, 산술능력, 기본적인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능력 부족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정보화교육 이수자 수(명)	●
서울시민에게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한다.	지속가능발전 및 '전환도시 서울' 교육 실시	교육 이수자수 (명)	●	
<b>5</b> 성평등 보장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앤다.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 젠더거버넌스운영	성인지 정책제안 활동 사업 수 (건)	●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앤다.	여성안심특별시 서울	안심이 앱 다운로드 (건수)	●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호정책, 가정 내 책임 공유 추진을 통하여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정 개소 수(개소)	●
	여성이 남성과 공평하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보장한다.	여성관리자 양성	여성관리자 양성비율(%)	●
<b>6</b> 깨끗한 물과 위생 	서울시민 누구나 아리수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고 수질검사 항목을 강화한다.	아리수안심 서울 조성	노후상수관 정비율(%)	●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오염 총량을 관리하며 방류 수질을 개선하고 노후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등으로 한강수계 수질을 개선한다.	CSOs 관리를 통한 하천 수질개선	CSOs 저류조 설치 (㎡)	●
	빗물관리시설을 확충하고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빗물관리(이용) 시설 확충 사업	빗물관리시설 확충 개소(개소)	●
	한강수계유역의 수질, 수량, 수생생태계를 통합 관리한다.	한강유역 통합 물관리활동	한강유역 통합 물관리 활동	●
	한강 숲을 조성하고 천변습지와 자연 호안을 조성하는 등으로 한강수계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추진	한강숲조성(주)	●
			자연형 호안복원(km)	●
물관리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한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민간지원단체 수(개)	●	
<b>7</b>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한다.	에너지바우처사업	에너지 바우처 대상 가구 발급률(%)	●
	신재생에너지 전력이용률 8%를 달성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누계)(MW)	●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
	건축물 부문과 교통 부문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건물에너지 효율화	그린 리모델링 (노후 공공건물)(개소)	●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	전기차 보급 대수 (누계)(대)	●
신재생에너지 기술 분야를 포함한 녹색기술 R&D 지원을 확대하고 7대 녹색산업(신재생에너지, LED, 그린카, 녹색건축, 녹색서비스, 그린IT, 도시자원순환)을 증진한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체제 강화	온실가스 배출량 (천톤CO <sub>2</sub> )	●	
	녹색 중소기업 지원	녹색 중소기업 지원 수(건)	●	

서울 SDGs	이행과제	세부사업	성과지표	2030목표 진행수준
<b>8</b> 좋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 	타 지역과의 상생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GDP, GRDP의 성장을 도모한다.	지역자원 교류의 거점 공간 「상생상회」 조성·운영	상생상회 월 이용자 수(명)	●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을 지원하고, 청와혁신을 통한 산업 다각화로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형 신성장 기업」 육성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 수(개) <sup>20)</sup>	●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수(개)	●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선정 수(개)	
	성별 임금격차 개선으로 성평등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	성평등임금 컨설팅 기관 수 (개)	●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실업 상태의 청년 비율을 대폭 줄인다.	청년 뉴딜일자리 추진	뉴딜일자리 참여자 수(명)	●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노동권익센터 운영	노동자문리 구제건수 (건) (서울노동권익센터)	●
서울시의 고유문화와 특산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고품격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을 입안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다.	서울 관광 중기 발전계획 추진 관광 분야·중장기 행정 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관광기업 지원 수(개) 관광계획 지속가능성 검토 여부	●	
<b>9</b> 산업, 혁신과 인프라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과 행복한 삶을 위한 양질의 친환경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	N/A
	미래 기술 기반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형 신성장 기업」 육성	서울형 신성장 기업 육성 수 (개)	●
	연구개발 인력 및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기반 산업경쟁력을 높인다.	「서울형 R&D」 지원 사업 AI 인재양성	연구개발비 지원금액 (백만원) AI 분야 인재 양성 수(명)	●
<b>10</b>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국가 및 서울시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중위 소득 하위 43% 이하의 생활을 하는 서울시민이 없도록 노력한다.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명)	●
	모든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단체 수 (누적) (개)	●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행을 개선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인권영향평가제도	인권영향평가 실시 건수 (건)	●
	재정정책, 임금정책, 사회보호정책 등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서울형 생활임금제 정착 및 확산	생활임금 지급률 (생활임금 적용대기업) (%)	●
<b>11</b>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서울시민의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노후주거지의 환경개선, 부담가능한 주택의 확충을 통해 모든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공공임대·공공 지원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비율 (%)	●
	수도권 광역체계와 연계하여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	N/A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 활성화	도시계획 시민참여단의 사회적 소수자 비율(%)	●
	서울의 역사문화,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자연, 역사, 문화,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한다.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미래유산 선정 건수 (건)	●
	빈곤층,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재년에 취약한 시민들에 대한 재난 시 구호체계를 강화하여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는 안전한 도시 서울을 조성한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안전취약가구 점검 및 정비 가구 수 (가구)	●
	미세먼지의 농도를 2016년의 70% 수준으로 낮춘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걱정없는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ug/m <sup>3</sup> )	●
	공원복지 사바스의 소외지역을 최소화하고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공공복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일상에서 만나는 생활정원 확대	생활정원 녹화면적 (km <sup>2</sup> )	●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서울 대도시권의 경제·사회·환경적 연계성을 강화한다.	소통·공유의 지역 상생공동체 조성	MOU 체결 지자체 수(누계) (개)	●

20) 2020, 2021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2030목표 방향에 역행하여, 이를 반영함.

서울 SDGs	이행과제	세부사업	성과지표	2030목표 진행수준
 <p>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p>	환경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대 목표 추진	서울 SDGs 체계 이행	●
	천연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추진	(자원)순환이용률 (%)	N/A
	서울시민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인다.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및 종합계획 수립추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 (%) ('14년 대비)	●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고 유해폐기물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서울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 권리 강화	환경보건위원회 운영	●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 발생을 대폭 줄인다.	생활폐기물 직매입제로 자원순환도시구축	생활폐기물 감축률(%)	●
	서울지역 내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하도록 권고·지원한다.	서울 SDGs 2030의 민간실천 촉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업(단체) 수	●
	시민의 친환경제품 소비를 촉진하고, 공공 기관의 친환경 제품 구매 등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시행을 확대한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관리	녹색제품 구매율 (%)	●
	모든 시민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생활양식을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지속가능발전 및 '전환도시 서울 교육 실시	교육 이수자수 (명)	●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소비와 생산을 부추기는 조세 및 보조금 등 제도를 점검한 후 이를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친환경금고기준	친환경금고지정기준	●
 <p>13 기후변화 대응</p>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복구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풍수해 예방 및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시설 확충	침수취약지역 하소 원료율 (%)	●
	서울시 정책, 전략, 계획에 기후변화 대책을 통합하여 추진한다.	기후환경 분야 중장기 행정계획 지속가능성 평가	법정계획의 기후변화 대응 반영률 (%)	●
	기후변화교육 대상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치구 협력 및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지역 역량을 강화한다.	에너지 자립마을 2.0 기후변화 교육 찾아가는 에너지 놀이터	에너지 자립마을 수 (개) 기후변화 교육 이수자 수(누계) (명)	●
	온실가스를 2005년의 60% 수준으로 감축한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체제 강화	온실가스 배출량 (천톤CO <sub>2</sub> )	●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사업을 개선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기후변화기금 확대 및 운용 개선	기후변화기금 지출사업 편성규모 (백만원)	●
	국제기구의 기후변화 메커니즘에 참여하고 파트너십을 이루어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제협력력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국제협력력 추진	기후관련 국제 포럼 개최 건수 (회)	●
	 <p>14 해양생태계</p>	한강 수계의 폐기물과 녹조 발생 등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 현저히 줄인다.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꼼꼼한 수질관리	수질검사 항목수 (개)
한강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여 서해를 비롯한 해양생태계의 회복력을 증진한다.		수질오염 총량관리(물재생센터 방류수질 관리)	수질오염 총량관리(물재생센터 방류 수질 관리) (mg/l)	●
한강이 해양생태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 및 인천시와 협력한다.		통합 물 관리 연구	연구기관의 교류 협력 횟수 (회)	●

서울 SDGs	이행과제	세부사업	성과지표	2030목표 진행수준
	서울의 숲, 산, 습지, 하천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한다.	삼천만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	나무 식재량 (주)	●
	산림 내 훼손지에 자생수종을 식재하고 산불 예방을 강화하여 수목을 보호하는 등 서울의 산과 숲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안전한 도시 숲 관리	산불 피해면적 (㎡)	●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철새 보호구역 등 자연생태보호지역 면적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자연생태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자연생태보호지역증가 면적 (㎡) ('14년 대비)	●
	소규모 생물서식 공간조성, 생물종 복원 및 서식처 확충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한다.	생물종다양성을 위한 야생생물 증식 및 복원	야생생물 증식 수 (마리)	●
	외래종 유입 및 무단방사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계 교란종 확산의 원인을 제어한다.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	생태계교란생물 제거 면적 (천㎡)	●
	서울시 계획과 개발 과정에 생물서식공간 및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통합한다.	지속가능성 검토를 통한 법정계획의 생물다양성 증진	생물다양성 증진 제도화 여부	●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강력범죄 발생 건수를 대폭 줄인다.	생활안심(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	생활안심 디자인 조성 개소 수 (개소) 서울5대강력범죄발생 건수(100명당 건)	●
	학대, 착취 등 모든 형태의 아동 대상 범죄 발생 건수를 대폭 줄인다.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조사 공무원 확보	●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 문화,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모든시정을 인권의 관점에서 추진한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시정권고 이행률 (%)	●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상습적 고액 채납 및 탈세 징수를 대폭 강화한다.	채납징수 강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sup>21)</sup>	●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근절한다.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점)	●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과 제도를 확대한다.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시민·주민감사 등 확대 건수 (건)	●
	주민참여행정을 실현하여 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강화한다.	시민숙의예산제	시민숙의예산액 (백만원)	●
	모든 시민의 정보접근성을 향상하며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한다.	와이파이 소외없는서울 조성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공공와이파이공급 <sup>22)</sup> 정보화교육 이수자 수 (명)	●
	서울시 각 자치구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자치구 지속가능 발전 컨설팅 시행	컨설팅 자치구 수 (개)	●
		해외도시와 과학, 기술, 혁신에 관한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상호합의에 따른 지식 및 정책의 공유를 강화한다.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강화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 건수 (건)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성과를 개발 도상국으로 확산하고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SDGs 지식공유 플랫폼 운영 지원	SDGs 플랫폼을 통한 서울시 사례수(누적 건) <sup>23)</sup>	●
해외도시와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국제회의 참가 및 교류협력 사업 건수 (건)	●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 서울시·시민사회·기업 파트너십을 활성화한다.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운영	위원회 회의 안전 수 (개)	●
개발도상국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ODA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한다.		ODA를 통한 서울시 우수 정책 해외 진출 사업 추진	해외사업 신규 수주 (건)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남북협력을 추진하여 서울시민의 안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서울-평양 생활 협력 단계적 활성화	생활협력 단계별 추진	●

21) 체납징수율 자체는 2030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2020~2021 감소폭이 크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22) 정보화교육 이수자수는 표준연간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으나, 공공와이파이 공급은 역행(빨간신호등)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이행과제에 반영하여 노란신호등으로 표시함.

23) 2020~2021 성장률이 0%이며, 2020, 2021 목표 미달성으로 빨간신호등으로 표시함.

## 별첨2. 제4기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명단

역할	성명	분과	소속	비고
위원장	김일중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토위원
부위원장	원기준		따뜻한한반도 사랑의연탄나눔운동 사무총장	
지속위 위원	권영섭	경제	국토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지속가능성 보고서 집필위원
	김달호	경제	서울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성지은	경제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동희	경제/협력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지속가능성 보고서 집필위원
	최진석	경제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범수	경제/협력	경기대학교 관광문화대 교수	지속가능성 보고서 집필위원
	홍현종	경제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	경제분과위원장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토위원
	황보현우	경제/협력	(주)하나벤처스 경영전략본부장	
	김성철	사회/협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김태현	사회	서울기술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실장	지속가능성 보고서 집필위원
	박혜경	사회/협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백선희	사회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토위원
	백준상	사회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교수	
	서현선	사회	(주)진저티프로젝트 대표	
	안선덕	사회	젠더N 다양성연구소 대표	
	이선경	사회	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	
	정수미	사회/협력	강남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사무국장	
	최성숙	사회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사회분과위원장
	김남수	환경	(주)국토환경연구원 부원장	지속가능성 보고서 집필위원
	김미화	환경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김종호	환경	한국환경연구원 부원장	
	박숙현	환경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	환경분과위원장·실행간사 지속가능성 보고서 집필위원
	박연희	환경/협력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소장	
	송재혁	환경	서울시의회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안중우	환경	성신여대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교수	
	이정현	환경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토위원
	이창우	환경	(사)환경과문명 도시환경센터장	지속가능성 보고서 집필위원
	김태균	협력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임종국	협력	서울시의회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최진봉	협력/사회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협력분과위원장/사회분과 겸임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토위원	